

# “한국 경제 구조적 한계 넘어야… 정부-기업 간 협력 중요”

2026년 새해를 맞는 국내 주요 경제 단체장과 재계 총수, 금융권 협단체 수장들은 올해를 한국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전환의 해’로 규정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기술 혁신과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실행력 확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한목 소리로 강조했다. 나아가 저성장 고착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복합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파악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 1면 ‘바닥찍은 韓…’서 계속

## “조용히 좋아지는 한 해 성장 범위 확장이 관건”

국가별로는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은 성장률의 주체적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연방 준비위원회 의장 교체, 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 중간선거 등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가 글로벌 불확실성의 최대 변수로 꼽혔다.

한국 경제는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정부의 대규모 산업 정책 투자와 민간 소비 회복으로 1% 후반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 성장동력 약화가 중·장기 위험요인”이라며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산업과 기업의 혁신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규제 개선과 AI 전환을 통해 생명보험업계가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 의료보험 정상화와 신사업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위험과 고령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시화된 만큼 신용카드사가 지급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이에 참여하고, 지급결제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영업 체널 확대와 중장기 발전 전략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부실채권 정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비대면 금융사기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성운·원관희·나유리 기자  
ysw@metroseoul.co.kr

/양성운 기자 ysw@

은 “우리 경제가 대전환하는 골든 타임, 인류가 새로운 기술 문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행력과 속도”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주요 그룹 총수들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AI를 강조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 있다며 ‘혁신’과 ‘도전’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SK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칠없이 헤쳐나가자”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는 이제 막이 오른 단계일 뿐이며 앞으로의 시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기회도 무한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으로 더 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도 악해야만 한다. ‘선택과 집중’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독보적 기술과 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 없는 도전’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무기로 삼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에 처음 빌을 내딛는 용기”라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주저 없이 논의하고 실행해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실행력을 강조하며 피지컬 AI를 통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 허 회장은 “변화에 대해 한발 앞서 실행하는 자세로 우리가 죽적해 온 현장 중심의 도메인 지식과 피지컬 AI를 결합하고, 외부 기술 기업과의 과감한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 임팩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2026년을 ‘AI 비즈니스 임팩트’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2026년 전략적 역량을 모아 AI 대전환(AX)을 가속화하고자 강조했다. 박 회장은 “AI 기반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AX 추진을 통해 기존 제품의 지능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말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026년을 ‘다시 성장하는 해’로 규정하며 “모든 준비는 마쳤고 이제는 높게 날아올라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1등 기업의 본성’ 회복과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기존 전략을 보완하는 수준을

최태원 대한상의·SK그룹 회장  
“더 큰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야”

구광모 LG그룹 회장  
“과거 성공방식 뛰어넘는 혁신 필요”

정기선 HD현대 회장  
“우리만의 것’을 만들어 나가야”

허태수 GS그룹 회장  
“AI 비즈니스 임팩트’ 가시화 원년”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AX 가속화…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다시 성장하는 해… 높게 날아올라야”

1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 4인은 2026년 새해를 ‘우리 경제 대전환의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윤진식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 등 4대 경제단체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맞는 포부와 우려 등을 일제히 전했다. 이들

# 丙午年

2026년에도 유한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정진하겠습니다.

Progress & Integrity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SINCE 1926



# 반등 국면에도 동반 성장 아니다… 산업·기업별 ‘명암’ 뚜렷

## 韓 경제 ‘성과 양극화’

저성장 고착 속 기업 격차 확대  
반도체·AI 등 신산업만 선전  
전통 제조·유통은 부진 지속  
거시보다 기업 전략 성패 좌우

2026년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의 끝자락에서 벗어나며 완만한 회복 흐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회복은 과거처럼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국면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저성장이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산업 간, 나아가 같은 산업 내 기업 간 성과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외화와 재화산을 반복하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수출 중심의 고성장 국면은 이미 지나갔고, 내수 회복 역시 산업별·기업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2026년은 ‘얼마나 성장하느냐’보다 ‘누가 성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중심에는 반도체와 AI를 축으로 한 IT 신산업이 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설은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공정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산업·기업 간 격차가 뚜렷해지는 한국 경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 산업 가운데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증가하는 몇 안 되는 분야로 꼽힌다. 바이오헬스 산업 역시 바이오시밀러와 위탁생산개발(CDMO)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이들 산업 안에서도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실격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IT 신산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기업 간 격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 가전 등 ICT 관련 산업은 IT 경기 회복과 교체 수요에 힘입어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되지만,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해외 생산 확대는 국내 기업 간 성과 차이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선업은 수주잔량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기저효과로 인

해 단기 지표 둔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통 제조업의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철강과 정유, 석유화학 산업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공급 과잉, 자금 률 상승 등으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 기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탄소 규제 강화와 비용 부담까지 겹치며 생산 여건은 한층 악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환 속도와 경쟁력에 따라 성과는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산업 역시 구조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 확정으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고관세 부담과 전기차 수요 둔화, 주요 차종 노후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해외 현지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 생산 지표가 엇갈리는 흐름이 예상된다. 기업별 대응 속도에 따라 성과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산업 전반의 흐름 속에서 유통·식품업계 역시 ‘선별적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통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밝은 곳은 백화점이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핵심 상권의 상위 점포들은 명품 소비와 체험형 콘텐츠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바탕으로 ‘경험형

공간’으로 재정의되며 오프라인 유통의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일부 점포에 국한된 현상으로, 지방이나 경쟁력이 약한 점포들은 여전히 구조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출점 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선별과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형마트는 비식품 경쟁력을 사실상 상실한 대신 식품 중심 채널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선식품과 멜리, 가성비 중심의 PB 상품에 집중하며 매장 구조 역시 그로서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2026년에도 긴장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계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가 일상화되면서 상위 사업자 중심의 쇼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하위 플랫폼은 선택과 집중 또는 추가 구조조정 압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대기업, AI 사업 내재화 가속 체질 전환 속 노동개혁 관건

### AI 전환 본격화

삼성, AI·반도체 중심 450조 집행  
SK, 용인 클러스터 180조 투입  
현대차, AI·SDV·전동화에 125조  
LG, AI·소부장에 100조 투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의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던 2023~2024년을 지나, 올해는 AI를 실제 사업에 내재화하고 수익 창출로 연결하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글로벌 문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AI를 단순한 신기술이 아닌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수단으로 삼아 근본적인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서는데 사활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4대 그룹은 최근 향후 5년간 국내에 800조 원 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중장기 투자 전략을 잇달아 내놓았다. 세계의 투자 확대 흐름에서 중심에 놓은 분야는 단연 AI다. 기업들은 반도체와 제조, 모빌리티 등 핵심 사업 전반에 AI를 결합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등에 총 450조 원을 투입한다. 해당 투

자는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 아닌 지방에 첨단 산업·AI 관련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지난 11월 인수한 플랫폼그룹의 한국 생산라인을 건립해 AI데이터센터 시장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SK는 2028년까지 18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진행한다. 이중 상당 부분은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415만m<sup>2</sup> 규모 부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된다.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SK의 누적 투자 규모가 장기적으로 6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

현대자동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5조 2000억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투입된 89조 1000억 원의 투자액 대비 36조 1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LG도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 이 중 60%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40조 원은 LG AI연구원의 초기 AI 모델 ‘엑사원’ R&D, LG전자의 AI 가전 및 스마트폰 기술 개발 등 AI 분야에 투자 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2026년 대한민국, LS와 함께 전력(電力) 질주!

전기가 경쟁력인 시대,  
LS는 100년 가까이 전기 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왔습니다  
전선의 핵심 소재인 구리(Copper),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초전도 케이블,  
그리고 전력기기 및 솔루션까지  
발전-송전-배전 전 분야에 LS의 기술이 있습니다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 그 중심에 LS가 있습니다

# 경제성장률 개선 전망 속 ‘신중론’… 고환율·고물가 ‘변수’

## 전문가가 본 韩 경제 전망·변수

2026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이 경기 상방 요인으로 꼽히지만, 성장의 폭과 지속성을 놓고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에서 2%대 중반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고환율·고부채 부담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로 작용하는 만큼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반등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금리와 환율 경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경기 흐름에 따라 경제 전반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경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송현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한영도 한에스엠연구원 원장(전 삼명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등 4인의 학계 전문가들로부터 올해 한국 경제의 내·외부적 환경과 전망·상황변수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 Q.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현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이하 송) : 지난해 성장률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5% 성장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영도 한에스엠연구원 원장(이하 한) : 구조적으로는 1%대 후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크지만, 확장적 재정과 수출 회복이 결합되면 2% 안팎의 정책 주도형 반등도 가능하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이하 구) :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1.8~1.9% 달성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하 조) : 지난해 수준이거나 1% 후반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 Q. 기준 전망 대비 상·하향 요인은 무엇입니까?

-송 : 상향 요인으로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하향 요인으로는 환율 불안이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한 : 주력 산업과 소비재 수출 강세가 이어지면 상향 여지가 있지만, 관세 인상과 글로벌 교역 둔화,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가계부채 부담이 겹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송현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한영도

한에스엠연구원 원장

### 올해 경제 성장률 1% 후반~2%대 전망 반도체 호황 ‘긍정적’, 환율·부채 ‘부담’

### 美 경기흐름 중요… 연준 금리인하 ‘주목’ 지정학 리스크, 제약조건 고려한 정책 필요

### 고환율 기조 유지 땐 물가 안정 어려울 듯 부동산, 수도권 중심 회복… 주식은 변동성

치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

-조 : 미국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한국 경제의 숨통이 트일 수는 있다.

-구 : 정치·통상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경기 호황이 긍정적 요인이다.

### Q.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국 경기 흐름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무엇입니까?

-조 :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중국은 성장 전망이 어둡고, 유럽 역시 뚜렷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 : 미국 경기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경기가 둔화되면 보호무역 강화와 미·중 마찰 심화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구 : 미국의 AI 호황 지속과 미·중 갈등 봉합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한 : 글로벌 교역과 금융 환경의 방향성 자체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Q. 미 연준(Fed)의 통화정책은 2026년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한 : 연준 의장 교체와 11월 중간선거라는 정치

·제도적 이벤트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연준 의장의 정책 성향과 정치 환경의 변화는 금리 인하 시기와 강도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흔들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 :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고 실물경제 과열 신호도 제한적이어서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송 : 미 연준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유럽이나 아시아로 금융투자자 분산될 여지가 있다.

-구 :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과 글로벌 자금 흐름의 유불리가 갈린다.

### Q.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수준까지 경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송 :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갑자기 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이를 제약조건으로 고려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한 : 지정학 리스크는 유가·물류·공급망을 통해 물가와 금리, 환율, 투자 흐름을 동시에 흔드는 핵심 거시 변수다.

-조 : 중국은 국내에 과잉생산된 전기차, 태양광, 철강 등을 해외로 실어 나르려 하기 때문에 미·중 갈등은 더 심화될 수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전 양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 : 중동은 제한적 영향에 그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휴전 여부에 따라 러시아와의 경제교류 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 갈등은 일단 휴전 상태이고 내년에 재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큰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Q. 올해 물가·금리·환율 전망은 어떻습니까?

-조 :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압력이 우려된다.

-송 : 올해에도 물가 상승률은 예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구 : 고환율이 지속되는 한 물가 안정을 기대하

기 쉽지 않다.

-한 : 물가는 안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지만, 환율과 지정학 리스크가 결합될 경우 유가와 물류비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외식, 의료 등 서비스 물가는 하방 경직성이 강해 임금 인상과 맞물릴 경우 물가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Q. 올해 금융·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 :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제한될 수 있고, 기업 실적 개선 없이는 주가 상승에 한계가 있다. 부동산은 회복되는 시장을 정부가 억누르는 상황으로 부동산 억제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서울과 일부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역 양극화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조정 가능성이 높다.

-한 : 주식과 채권 모두 기회와 변동성이 공존하는 국면이다.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유동성 여건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경기둔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불안이 동시에 존재해 시장의 병행성은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수도권 중심의 선별적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인하 기대와 대출 여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주택 공급·세제 정책이 맞물리면서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은 전국적인 동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송 : 상반기에는 주식시장 환경이 비교적 양호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선거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조 : 주가는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물경쟁력이 주가 상승의 핵심이다.

### Q. 내수 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무엇입니까?

-한 : 내수 회복의 핵심은 일회성 소비 진작이 아니라 기계와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정책 폐기지다. 고금리·고물가·고부채 환경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여력이 함께 악화된 만큼 가계 부채 이자 부담 완화와 취약 차주 채무 조정, 주거·의료·교육 등 필수 고정비 절감과 함께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투자와 고용을 뒷받침하는 금융·세제·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소비와 투자가 맞물린 내수 회복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송 : 규제 개혁과 시장 자율성 확대가 중요하다.

-조 :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현금성 지원 남발은 경제 체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구 :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승용·원관희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26-01호]

##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민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분양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로 통지되는 분양신청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은 본 공고를 già합니다.

- 아 래 -

### 1. 사업의 종류·형태 및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1)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3) 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146번지 일원 4) 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 7,579.1m<sup>2</sup>

### 2. 건축심의 내용·시행령 제 24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른 제 2호 조건의 사항

1) 건축물의 주 용도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146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7,579.1m<sup>2</sup>(실 사용 면적)

3) 건축면적 : 2,228.577m<sup>2</sup> 4) 건축연면적 : 32,515.5893m<sup>2</sup> 5) 건폐율 : 29.4% 6) 용적률 : 234.1%

7) 높이에 관한 계획 : 지하 4층 ~ 지상 14층 8) 건축선에 관한 계획 : 30.01m 이내

9) 공동이용시설 : 1,939.3238m<sup>2</sup>(주민공동시설)

3. 분양신청 기간 : 2026년 1월 2일(금) ~ 2026년 2월 3일(화)(까지)(33일간) / 10:00 ~ 17:00

4. 분양신청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598-7, 2층 (방화동로 69-1, 2층)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임대주택제 제외)

구분 유형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구분	유형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분양주택	40	5	40.5254m <sup>2</sup>	15,601.9m <sup>2</sup>	56,127.3m <sup>2</sup>	16,978.5평형	
	49	19	49.5995m <sup>2</sup>	19,460.1m <sup>2</sup>	69,059.6m <sup>2</sup>	20,890.5평형	
	59A	14	59.8678m <sup>2</sup>	22,744.6m <sup>2</sup>	82,612.4m <sup>2</sup>	24,990.2평형	
	59B	6	59.7337m <sup>2</sup>	23,813.1m <sup>2</sup>	83,546.8m <sup>2</sup>	25,272.9평형	
	59C	14	59.9767m <sup>2</sup>	22,636.6m <sup>2</sup>	82,613.3m <sup>2</sup>	24,990.5평형	
	74A	28	74.9955m <sup>2</sup>	27,724.4m <sup>2</sup>	102,719.9m <sup>2</sup>	31,072.7평형	
	74B	8	74.9675m <sup>2</sup>	28,406.07m <sup>2</sup>	103,374.2m <sup>2</sup>	31,270.6평형	
	84A	26	84.8718m <sup>2</sup>	30,795.4m <sup>2</sup>	115,667.2m <sup>2</sup>	34,989.3평형	
	84B	14	84.9404m <sup>2</sup>	31,331.9m <sup>2</sup>	116,273.2m <sup>2</sup>	35,172.3평형	
	108A	9	108.4649m <sup>2</sup>	40,285.6m <sup>2</sup>	148,750.5m <sup>2</sup>	44,997.0평형	
108B	12	108.6375m <sup>2</sup>	41,727.0m <sup>2</sup>	150,365.2m <sup>2</sup>	45,485.4평형		
합계		155세대	11,556.5232m <sup>2</sup>	4,332.1359m <sup>2</sup>	15,888.6591m <sup>2</sup>	-	

\* 상기 내내는 건축설의 기준이며, 형편 관리처분 및 인허가(면허증)에



세상을 바꾸는 금융

## KB가 생산적금융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반도체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심장  
반도체 클러스터

KB금융그룹이 생산적금융으로 그리는 미래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작이 더 큰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은 금융 주관사로서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드는 KB의 생산적금융

### ■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금융주선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사업의 금융주선 사업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총 110조 원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전략 산업과 서민 취약 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며 '미래 산업 육성'과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 KB디테크 스케일업 펀드 결성

첨단기술 분야를 지원하는 1,600억 원 규모 펀드를 결성하여 차세대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언제나 힘차게 달려 나가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B금융그룹

 KB 금융그룹

## 기업들의 생성형 AI 활용방식

리서치·데이터분석

업무효율화

혁신·학습

비즈니스운영 5.3%

콘텐츠·마케팅 3.9%

미사용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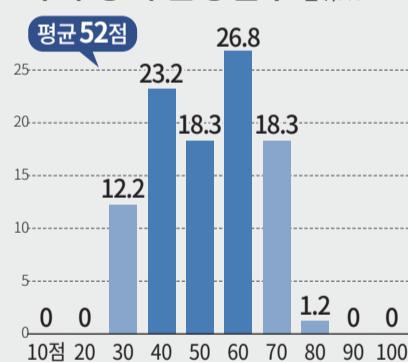
기타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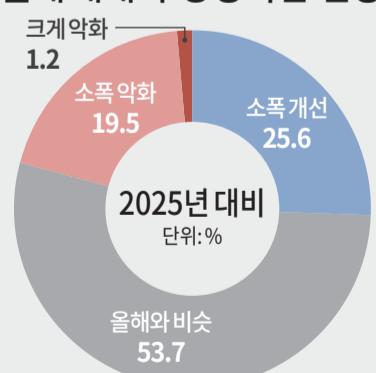
기업들 2곳 중 1곳은 2026년 경영 여건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을 힘들게 버텼지만 올해도 농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은 경영여건이 개선될 시기로 '2027년 이후'를 꼽았다. 내수 침체, 미국 관세 전쟁 등 통상 이슈, 국제정세 불안,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최악은 지난해처럼 회복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기업들이 매긴 국내 경제 환경 체감 점수는 평균 52점으로 사실상 '낙제점' 수준이다.

이같은 내용은 메트로경제가 금융·증권·건설·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국내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신년 설문조사'를 실시해 82곳이 답변한 내용을 분석, 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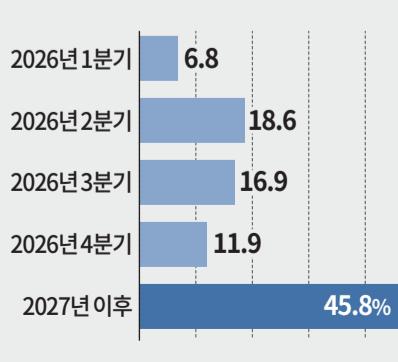
## 기업들이 평가한 국내 경제 환경점수 단위: %



## 올해 대내외 경영여건 전망



## 경영여건 개선 예상시기



# 기업 절반 "경영여건 작년과 비슷"

## 경제환경 체감점수는 '52점' 불과

## 주요기업 2026 경영전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대내외 경영 여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3.7%가 '2025년과 비슷'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비 '소폭 개선' 25.6%, '소폭 악화' 19.5% 그리고 '크게 악화' 1.2%로 각각 나타났다.

'경영여건 개선 시기'에 대해선 절반에 가까운 45.8%가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올해 2분기(18.6%) ▲올해 3분기(16.9%) ▲올해 4분기(11.9%) ▲올해 1분기(6.8%) 순으로 많았다.

경영여건 개선 시기 46% '2027년 이후'  
올해 2분기 19%, 3분기 17%, 4분기 12% 등  
기업 77% "올해 투자, 작년과 비슷할 것"

국내 경제 환경에 대한 기업들의 체감 점수는 '60점' (26.8%)과 '40점' (23.2%)에 주로 집중돼 있는 가운데 50·70점(각 18.3%), 30점(12.2%), 80점(1.2%) 순으로 파악됐다. 10·20·90·100점을 준 기업은 없었다.

## ◆ '내수 부진' 등 가장 걱정…규제 개혁 등 '기대'

기업들은 올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경영 리스크 요인' (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 및 경기 침체 지속' (45.1%), '관세·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39%), '환율 변동성 확대' (36.6%)를 주로 지목했다. '세제 및 인허가 등 국내 정책·규제 리스크' (28%)도 주요 우려 요인이었다.

최근 회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영 애로' (〃)로는 ▲내수 부진(54.9%) ▲규제 부담(48.8%)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35.4%) ▲인력 수급 및 인건비 상승(28%) 등이 꼽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소해 보이는 규제 하나가 기업 경쟁력과 생존은 물론 국가 성장 속도까지 좌우한다"면서 "첨단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선 규제 체계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투자 위축은 성장 정체→고용 감소→세수 저하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응답기업들은 '올해의 국내 투자(사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절반이 훌쩍 넘는 76.8%가 '2025년과 비슷'이라고 답했다. '투자 확대' 답변은 17.1%에 그쳤다. 6.1%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기대나 불황기 적극 투자로 경쟁력 확보 등을, 줄이겠다는 곳들은 규제 강화 등 국내 투자환경 악화, 원자재값 상승 위험 등을 각각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 혜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 (〃)로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완화(61%)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31.7%)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28%) ▲수출 기업 지원 및 통상 불확실성 해소(26.8%) 등을 간절하게 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2026년은 인류가 새로운 기술문명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으로 우리도 한국 경제 대전환 즉 '뉴 K-인더스트리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한다. 나아가 'Made in Korea'를 뛰어넘어 'Innovated in Korea'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경제는 '저성장', 원·달러는 '고환율' 고착화

한국 경제의 2%대 성장률은 점점 '꼼'이 되고 있다. 본지의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76.8%가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대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2%대' 전망은 11%로, '1% 미만' (12.2%)이 될 것이라고 답변보다도 적었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7%로 각각 내다봤다. 그러나 2025년보다 나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보다 높은 2.1%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응답 기업들은 잠재성장을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중장기 정책 과제' (〃)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구조 고도화(75.6%)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46.3%) ▲글로벌 통상 전략 강화(31.7%) 등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코스피지수 전망치에 대해선 '4000~4500' (43.9%)과 '4500~5000' (23.2%)을 가장 많이 내다봤다.

올해 코스피지수를 놓고 증권가에선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완화' 정책 가장 시급

김기문 "규제체계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

국내 'GDP 성장률' 1%대 전망 기업 77%

2026년 코스피지수 상단의 경우 현대차증권이 5500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5300), 부국증권(5000) 등이 5000 돌파를 점치고 있다.

올해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73.2%가 달러당 1400~15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그중에서도 1400원대 초반(31.7%)보다 후반(41.5%)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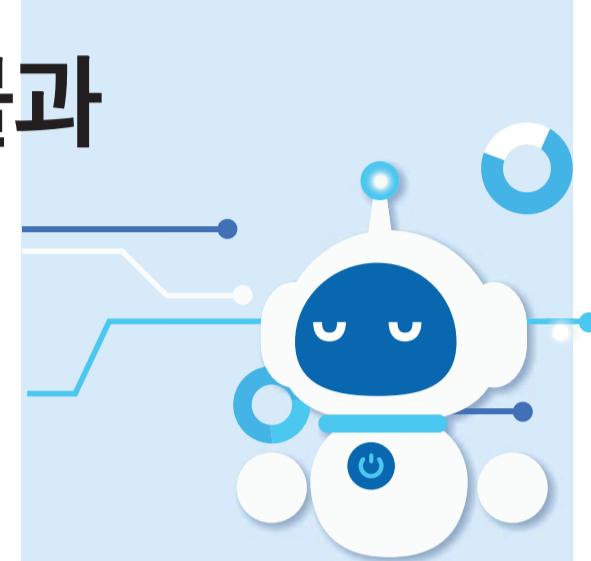
이외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의 기준금리(2.5%)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답변이 47.6%로 가장 많았다.

올해 평균 유가 전망치는 '50~70달러 사이' (71.9%)가 압도적이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가 대·중견·중소기업 82곳을 대상으로 신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대해 기업들은 평균 52점으로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손진영 기자 son@



## 생성형 AI 도입·활용 범위 설문

대부분 AI 도입 했지만  
아직 실험·기술 습득 중  
'상시적 활용' 6% 그쳐

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생성형 AI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곳도 더욱 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AI나 생성형 AI를 아직은 실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다. AI를 상시적으로, 또는 비즈니스에 직접 활용하는 것도 제한적이다. AI의 필요성 등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관련 투자 역시 소극적인 상태다.

방향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능 모양새다.

메트로경제가 82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년 설문조사를 실시, 2일 내놓은 결과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여실히 드러났다.

응답에 따르면 기업들은 AI를 '리서치·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 (38.2%)이나 '상시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적 증가' (35.5%) 등을 위해 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AI 사용 경험이 없다'는 답변은 단 1곳(1.3%)에 그쳐 많은 기업들이 AI를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CEO들 역시 생성형 AI 활용 이유로 'AI를 조직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 실험 중' (53.7%)이거나 'AI 활용에 익숙해지기 위해 경험·사용 습득 중' (30.5%)이라고 답했다. 다만 '상시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6.1%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생성형 AI 구축에 대한 실행(확대) 계획 수립'을 묻는 질문에는 주로 ▲혁신 가속화(30.5%) ▲업무 자동화(23.2%) ▲효율성 개선(17%) 등을 위해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AI 구축 실행계획이 있다면 예산의 어느 정도를 투자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전체의 81.7%가 '20%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40% 이상'은 한 곳도 없었다.

'AI 투자 후 수익 실현을 예상하는 기간'에 대해선 대부분이 '3~5년' (48.8%) 또는 '5년 이상' (22%)을 꼽았다. 비교적 짧은 '1~3년'도 20.7%였다.

/김승호 기자·김민솔 인턴기자 bada@metroseoul.co.kr



우리금융그룹



# 우리는 올해 어떤 나라가 될까요?

하면 된다의 나라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문화로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를 지나

새해,  
우리 모두의 기대를 품고

## 우리금융그룹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 금융그룹 최초, 총 80조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지원 |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도전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될 테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더 큰 가능성을 품은 나라를 향해

## 언제나. 우리 기업을. 맨앞에



AI, 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지원



전국 15개 권역별 기업금융 특화센터 설립으로 지역 우수기업 지원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후원사

우리나라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동양생명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ABL생명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끝없는 정쟁에 韓 표류 위기… 與野 ‘경제 회복’ 힘 모아야

## 국정 흐름 전망

한국 경제 완만한 회복흐름 예상  
선거 등 정치권 이슈 변수 전망  
일각선 청와대 정국주도 의견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예상되지만, 그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많다. 주요 연구기관들은 성장률이 이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제시하지만, 대외환경과 구조적 제약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이다. 수출 회복과 내수 개선 기대가 공존하는 가운데, 정치·정책 환경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 ◆ 정쟁이 가장 큰 리스크… 정치가 경제 변수로 떠오른 2026년

경제는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 주체들은 경기를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정책 방향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은 낮아지면, 내수가 줄어들고 고용·투자 결정이 미뤄지는 이유다.

최근 한국 경제의 지표는 엉길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소비와 수출이 개선되면서 전기



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비 1.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전 분기보다 높은 1.7%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제조업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수출이 증가했을 뿐, 제조업 전반의 생산과 체감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글로벌 경기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변수도 상존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과 소비 심리 회복 지연이 경제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로 ‘정치’가 지목되고 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쟁이 장기화되거나, 중장기 과제가 정치 일정에 따라 지연

된다면 불확실성은 더 높아진다. 정치적 갈등은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반의 비용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2026년은 이제명 정부 2년차이자 자방 선거가 예정돼 있다. 정책 결정에 정치 일정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선거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이제명 정부는 올해를 6대 구조 개혁(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의 추진 원년으로 삼고 있다. 집권 2년차에 잠재성장을 제고 핵심 과제인 구조개혁의 물꼬를 터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장기 과제는 단기적인 선거 일정을 고려할 경우, 추진 동



지난 달 31일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종무식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

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온다.

### ◆ 정책 불확실성과 정쟁 구조, 경기 회복의 제약 되지 않아야

올해 정부의 주된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제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을 반등’을 꼽아왔다.

일단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 법안 통과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중장기 과제를 의제로 내세웠을 때 정쟁의 소재로 전락할 수 있다.

집권 초반 국정 동력과 여당의 의석수가 뒷받침 될 때, 6대 구조개혁을 이뤄내

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시각이다. 야당과의 갈등이 부각될수록, 구조개혁의 길은 점점 험난해진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 국면으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진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등 갈등이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 동력이 높은 2년차, 청와대가 정국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나, 외환위기 극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비상경제 대책 회의 등 청와대가 주도해 국가 경제의 큰 맥을 잡아왔던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지방선거의 해… ‘내란청산·야권재편’ 변수

### 李 정부 집권 2년차… 첫 시험대 ‘압도적 승리구도 나오기 어려울 것’

6·3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 혼란 극복과 민생·경제 정상화를 기치로 출범한 이제명 정부 집권 2년차에 열리는 선거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허니문 기간 특수를 누려 지난 지방선거의 대패를 설욕할지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적극적으로 구애해 지방권력을 수성할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가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은 만큼, 시민들의 지지를 움직일 변수가 많아 선불리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고 봐야 한다. 경제 상황이 어떨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외교 문제, 한중 관계나 남북 관계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변수들이 지금과 비슷한 수준과 같다면 (정부·여당이) 허니문 이펙트를 볼 것”이라며 “야권이 전열이 정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제가 안 좋게 되거나 외교에서 큰 실책이 터지거나, 혹은 정부·여당에서 큰 실책이 나오면 그때는 민주당이 이점을 누리는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권 초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허니문 기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발달로 짧아져서 지방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시선도 있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허

니문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에서 현 정부가 유리하지만, 허니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취임하고 나서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요새 기준으로 그것이 과연 허니문 기간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더 짧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SNS의 발달로 시민들이 금방 사람들이 정권의 문제점을 간파를 한다, 정권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각종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야당보다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는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도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이준한 교수는 장·한·석 연대론을 두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극적으로 됐다고 해도 선거용이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의명분이나 설득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오히려 ‘선거 용 압박’,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세 사람의 연대보다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연대 여부가 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요하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층은 기본적으로 집 토끼여서 보수 진영을 이탈할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층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중도 보수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 밖에) 놔두고 선거를 치르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집전 지역에서 개혁신당 후보자들이 나와서 3%만 가져간다고 하면 박빙 지역에선 국민의힘의 완패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라며 “특히, 수도권 같은 곳이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든 통합이든 이를 이뤄내느냐가 구조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부터 이어지는 비상계엄 가담자 관련 재판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특검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모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두고 시민의 피로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에서 악별이 떨어질까봐 종합특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일텐데, 내란 이슈를 오래 끌어도 내란 피로증에 빠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종훈 평론가는 “내란 관련 선고나 종합특검 추진에도 선거 막판으로 가게 되면 회귀를 한다. 어느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구도는 짜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는 결집하고, 중도표는 양쪽으로 갈릴 것이고, 결국 1~2%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평론가는 “중도 표심이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느냐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중도층에 위축 관심이 없이 행보를 하니 문제인데, 개혁신당까지 놔두고 극우처럼 해서 선거 치르면 완패”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명 대통령이 가만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라든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영입한 것처럼 중도 보수 성향 인재들을 영입해서 아예 선거에 투입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지난 달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제1차 합동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동철, 문정복, 이건태, 이성윤, 강득구 최고 위원 후보. /뉴스

### 與, 지도부 공백 메우기… ‘관리형 인재’ 초점

#### 민주당 11일 최고위원·원내대표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충돌·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을 이번 달 11일에 선출하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인 3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보궐선거와 집권여당 원내를 이끌 원내대표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에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1일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신임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기호 순) 후보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이른바 친정청래(친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모양새인데, 친청계 후보는 문정복·이성윤 후보가 출마했고 친명계 후보는 유동철·이건태·강득구 후보가 출마해 2대 3의 구도를 보이고 있다.

최고위원과 함께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신임 원내대표에 누가 선출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

의 사퇴에 따라 오는 11일 신임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임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잔여 임기 4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원내대표직에 입후 보할 유인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이제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이 일찍이 선언했다.

진성준 의원은 당헌과 당규에 보궐선거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규정이 없어,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한번 더 연임을 노릴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긋고 ‘관리형 원내대표’ 직무에 충실히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진 의원 외에도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한병도(3선·전북 익산을)·박정 의원(3선·경기 파주을)이 출마를 결정하거나 막판 고심 중이어서 이번 원내대표 보궐 선거는 최대 4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보궐선거가 잔여 임기 4개월을 수행하는 원내대표를 뽑는 만큼, 친청·친명 계파색을 빼고 ‘관리형’ 원내대표 선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26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처럼!

손님의 힘찬 발걸음에  
**하나금융그룹이 함께하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입주물량 급감, 거래는 절벽… ‘주거비 부담’ 커진다



## 부동산 전망

올해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 속에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모두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경우 가격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실수요자라면 매수에 나설 시기로 판단했다.

◆ 올해도 ‘똘똘한 한 채’…차별화 심화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2.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이 4.2% 뛸 것으로 봤으며, 지방도 0.3% 상승으로 전망을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수도권은 2% 상승, 지방은 0.5% 하락으로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은 2~3% 상승, 지방은 1% 하락이나 보합으로 전망했다.

전면적 상승 아닌 선별적 회복  
대출규제·정책제약 병존 상황  
거래는 제한되고 가격만 반응  
서울 중심으로 나타난 매물 잡김  
지역별로 갈리는 시장 흐름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전면적 상승이나 하락이 아닌 선별적 회복과 차별화 심화 국면으로 전망된다”며 “금리는 인하 사이클 초입에 있으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책 제약이 병존하면서 거래는 제한되고 가격은 일부 지역·자산에만 반응하는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서울은 입주물량 급감과 매물 잡김, 정비사업 가시화가 맞물리며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핵심지·정비사업 지역 중심으로 가격 방어력과 신고가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수도권은 서울 접근성이나 교통 개선, 신축 여부에 따라 흐름이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17만2270세대로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서울은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1만 6412세대가 입주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억제와 함께 다주택자 규제 기조로 ‘똘똘한 한 채’가 수학 공식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잡았다”며 “공급 절벽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 거의 모든 자산이 모두 올랐던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본격적인 반등보다는 지역에 따라 제한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 주거비 부담↑… 전월세 더 뛴다

매매가격보다 더 문제는 전월세 가격이다. 입주물량이 줄었는데 매수자에게 거주 의무를 부과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전월세 물량은 더 감소했다.

양 위원은 “서울의 경우 입주물량 감

소와 매물 잡김으로 전세는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체감 주거비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은 서울 전세 불안이 일부 전이가 되겠지만 지역별 공급 여건에 따라 동반 급등보다는 제한적 상승 또는 혼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기관들 역시 올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은 전세가격이 수도권은 3.8%, 서울은 4.7% 상승할 것으로 봤다. 건산연은 전국 전세값이 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실수요자 “살 수 있다면 사라”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매매에 나설 것을 추천했다. 다만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대출규제 등은 감안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의 경우 매입가 부담은 크지만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입주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의 주택매매는 적절하다”며 “다만 매매시장은 매입 경로를 다양화해 전세금 정도 준비되어 있고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라

면 분양시장의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방법이 유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 랩장은 또 “1주택자가 상급지로 갈 아타려면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경매매물을 노리거나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 반드시 보유주택을 매각해 거래 회전율이 낮은 상황에서 기존집을 못 팔아 낭패를 보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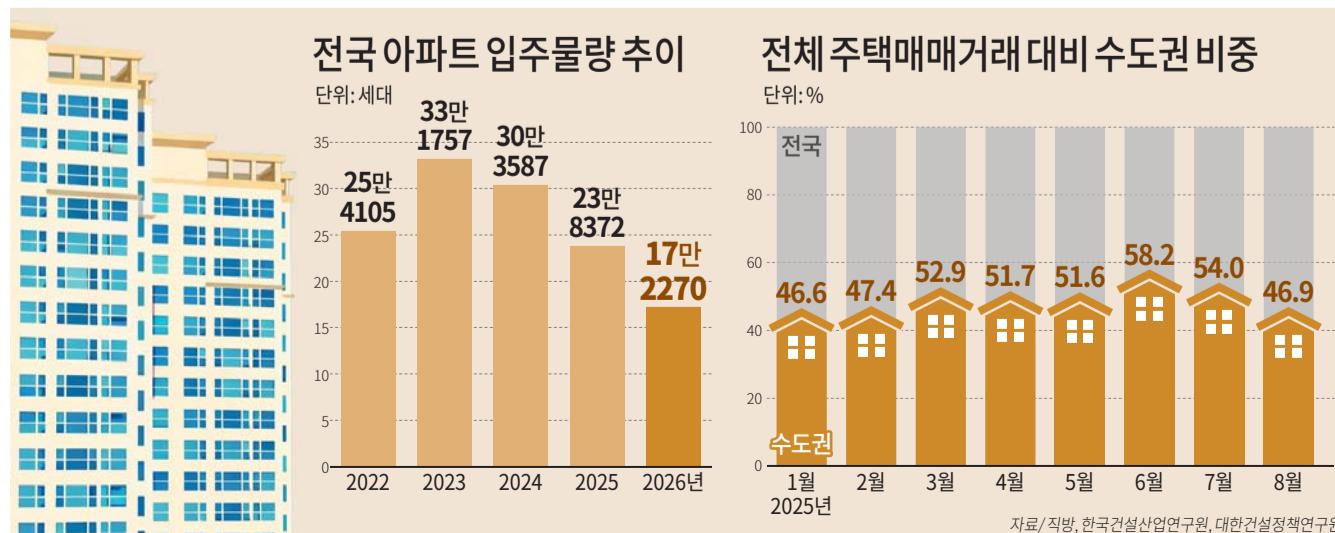
**입주물량 감소로 공급부족 심화  
전세 물량 줄며 불안 지속 상황  
월세 전환 가속화 흐름 확대  
체감 주거비 부담 계속 증가  
실수요자 판단 압박 등 커져**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수 가격보다는 우량 매물을 발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구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는 만큼 시세에 연연하기보다는 좋은 매물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가 지역들이 대부분 전고점을 회복한 만큼 중저가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실물자산인 주택의 경우 인플레이션 헛장을 위해 본인의 자금 수준이 적절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시세 보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랩장은 “고가지역이 뜨거웠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나 10~15년차 준신축 위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위주로 주목하지만 지방 지역 중 세종시와 대전 등은 수도권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올해 유동성·이익 동시 작동... 빅테크 중심 'AI·로봇' 집중

## 코스피 5000시대 열린다

#. 직장인 최모(37)씨는 요즘 재테크의 '재' 자만 들어도 화가 치솟는다. 저조한 투자 성적 때문이다. 2025년 한 해 수차례에 걸쳐 HMM·대한항공 같은 국내 대형주에 5000만 원 가량 투자했지만 최근 주가 급락에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14%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겨우 장만한 아파트도 불안하다. 다른 지역은 다 오른다는데 7억 4000만 원대에 산 서울 도봉구 창동 전용면적 58㎡ 아파트값은 나흘로 옆 걸음이다. 최씨는 "주식도, 부동산도 상투를 잡은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한 직장인 김모(33)씨의 성적도 참담하다. 한때 30%를 넘어선 수익률이 최근 10%로 수직 낙하했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하락에 손쓸 틈 없이 손실이 커졌다"며 "추가 자금 투입도 어려워 오를 때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속이 쓰린 건 공공기관에 다니는 이모(40)씨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미국 시장 주식 투자로 입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3종에 4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중 150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로 마련했다. 하지만 지금 수익률은 -10% 대를 맴돈다. 이씨는 "오르는가 싶으면 떨어지고, 떨어질 땐 폭락을 반복해 계좌가 쑥대밭이 됐다"고 말했다.

'사천피'(코스피 지수 4000) 시대를 연 증시가 5000이라는 신기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코스피는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지난 한 해 75.63%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의 나스닥(20.36%), 일본 닛케이 225(26.65%), 중국 상하이 종합(18.30%) 등 주요국 증시를 크게 따돌린 연간 누적 상승률 1위 기록이다.

하지만 코스피의 이례적인 불꽃 행보에 혼란스러워진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다. 하루가 멀다고 전해지는 신고가 행진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과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우려가 커지면서 발을 빼야 할지, 더 담가야 할지 쉽게 갈피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어 7500도 달성할 수 있을지 전망하고 있는 이미지.

### 코스피 불꽃행보... 지난해 75%↑ 시장 과열·조정 우려에 갈팡질팡

#### 美 테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주목 유동성 확대·정부 기조에 주식 관심

잡지 못하면서다. 상승장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수익률도 신통치 않다.

새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경기둔화'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를 것이라는 부정적 그림자도 동반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 속 자산 관리의 키는 어디에 뒀어야 할까. 국내 시장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곳은 다시 미국 테크, 그중에서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다. 골드 러시에 비유되는 AI 혁명에서 이미 많이 팔린 곡괭이(엔비디아 등 빅테크)를 이를 차세대 주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종시로 향하는 글로벌 유동성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전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준비제도(Fed) 자본' 비율은 오랫동안 5~6%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렇지만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하면서 2025년 10월 말 현재 이 비율은 21.6%까지 높아졌다. 실물 경제 대비 화폐 영역에서 풀린 돈의 규모가 금융 위기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한국 시장에 돈이 넘쳐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M2(광의통화)'는 4056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1년

만에 5.2% 늘어난 것으로 증가세로 짐작해 미국보다 더 가파르다.

2025년 4월부터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도입에 따라 향후 예금 이자 소득 대신 주식 배당소득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머니무브'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주식과 함께 금과 코인 등 대체자산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유동성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풀린 유동성이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후 달러가 불안정해지자 늘어난 유동성이 대체자산에 몰린 것으로 봄야 한다"고 진단했다.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만큼 투자처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도 감지된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조사에서 '주식'(31%)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갤럽이 2000년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 부동산(23%)을 앞섰다. 갤럽은 "부동산 대신 주식"을 표방하는 정부 기조에 따른 변화"라고 해석했다.

대통령실은 투자 자산의 긍정적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은 장기간 자금이 묶여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주식 시장에 자금이 흘러가면 기업 투자와 노동자 수입·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국무회의에

서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설화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해지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용한 정책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증권가는 2026년 한 해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봤다. 토스증권은 2026년을 '강세장 4년차' 국면으로 규정하며,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상승 구조 자체가 쉽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2024년이 인공지능(AI) 기대가 벨류에이션을 끌어올린 시기였다면, 2025년은 실제 기업 이익이 주가를 주도한 국면이었고, 2026년은 이익과 유동성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이라는 해석이다. NH투자증권도 변동성 지수(VIX)와 투자 심리지표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지만, 하이일드 스프레드나 국제 원자재 시장 등에서는 위기 국면을 시사하는 신호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투자 심리는 흔들리고 있지만 금융 시스템 전반이 다시 긴축 국면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증권가, 올해 '강세장 4년차' 규정 조정 있더라도 상승구조 유지할 듯  
상위 자산, 소수 종목 집중형 전략  
핵심 투자처 '인공지능·로봇' 꽂아

#### ◆ 파티를 즐길 투자처는 어디?

넘치는 유동성 장세에서 위험은 줄이면서 파티를 즐길 곳은 어디에 있을까. 큰 손들은 '주식'을 꽉는데 주저함이 없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는 향후 1년 이내 단기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 대상으로 주식(55%·복수 응답)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금·보석(38.8%), 거주용 주택(35.5%), 거주용 외

주택(25.5%), 펀드(14%) 등이 뒤를 이었다. 3~5년 중장기 투자에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로도 주식(49.8%)이 1위로 꼽혔다. 거주용 주택(34.8%), 금·보석(33.8%) 등도 언급됐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양증권이 지난해 1~11월 예탁자산 1000만 원 이상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그룹은 예탁자산 10억 원 이상 고액 계좌였다.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80%로 집계돼,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평균 상승률(51%)을 크게 상회했다. 한양증권은 고액 계좌일수록 대형주 중심의 안정적 포지셔닝과 낮은 회전율, 즉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는 전략을 공통적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장 조정기에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상승장에서는 누적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포트폴리오 구성도 특징적이다. 상위 자산 계좌 대부분은 투자 종목을 5개 내외로 압축한 '소수 종목 집중형' 전략을 택했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하기보다 대형주·주도주에 집중해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린 것이다.

증권가가 보는 핵심 투자처는 인공지능(AI), 로봇 등이다.

삼성자산운용은 '26년 전망 키 차트'에서 "2026년 미국 증시는 닷컴버블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에 도전할 것"이라며 "빅테크를 코어 투자처로 가져가되 휴머노이드 등 에이전틱 AI 적용 분야 확산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AI 관련 추천 ETF 중 하나로 'KODEX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을 꼽았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달 열린 신한금융시장 포럼 '2026 경제 및 금융 시장 전망'에서 "AI 확산 과정에서 변화하는 주도주에 주목해야 한다"며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한 인프라에서 팔린티어 같은 서비스 기업으로 주도주가 변화했고 그 다음은 AI가 적용되는 새로운 산업 분야, 즉 로보틱스, 모빌리티, 헬스케어, 우주·방산"이라고 분석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상반기 '가상자산 선진화' 목표... '원화코인' 논쟁은 여전

정부,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논의 통과 시 가상자산거래소 책임 명확화 해원화코인 발행요건, 감독권한 이전 가상자산 경쟁력 '골든타임' 잡아야

2026년은 '가상자산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올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 규율 현실화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선진화'를 논의하고 있고, 영리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ETF 등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도 주요 현안이다.

#### ◆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 가시권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불

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둔 법안이다. 당초에는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였던 만큼, 정치권은 상반기 내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 규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한 것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환경이 국제 표준에 크게 뒤쳐졌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의 상장 및 폐지 기준 마련, 가상자산 발행자 정보 공시, 거래사고 발생 시 책임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금융권과 유사한 소비자 보호 체계가 구축되는 만큼 자금 유입 활성화가 기대되며, 사후 규제의 불확실성이 위축됐던 거래소들도 적극적인 영업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된다.

#### ◆ 법인 거래·외국인·파생상품 논의도

'가상자산 선진화'가 가시권에 진입하

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인 거래, 외국인 고객, 파생상품 등 가상자산 업계의 '새 먹거리'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됐다.

국내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없지만, 지난 201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계좌를 요구하게 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됐다. 반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법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해당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6월에는 대학·기부금단체 등 일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법인에 한해 거

래가 허용됐으며, 당초 지난해 하반기를 목표로 했던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법인은 올 상반기 중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 투자가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 허용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외국인은 국내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한 상태다.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한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기대도 높다.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금융권을 통한 간접 투자도 가능해지는 만큼, 대규모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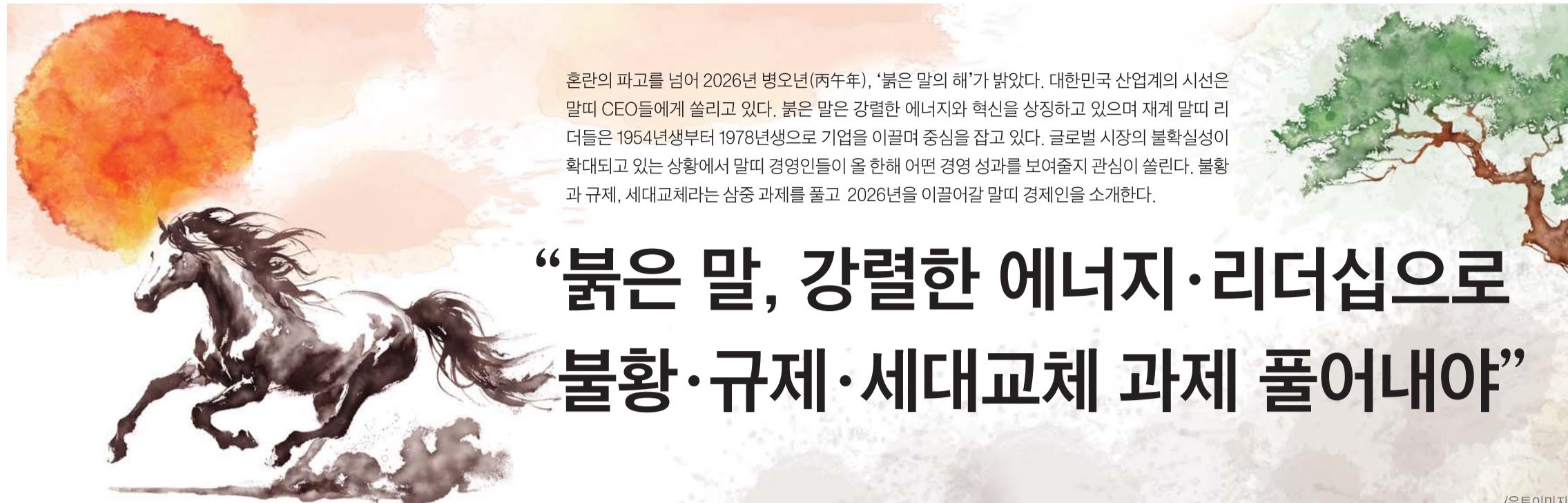
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호했다.

#### ◆ '원화코인' 잡음 지속 쟁점

지난해 하반기 입법 지연의 주요인이 됐던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 요건과 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견해차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여당은 당초 금융당국이 제출한 정부안을 기반으로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자체적인 입법 논의에 돌입한 상황이다.

6월 초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위한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잡음으로 전체적인 입법 절차가 지연된다면, 지방선거 이후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야 입법 논의가 활성화된 만큼, 뒤쳐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입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안승진 기자 asj1231@



# “붉은 말, 강렬한 에너지·리더십으로 불황·규제·세대교체 과제 풀어내야”

/유토이미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한상운 BMW그룹코리아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

## 달려라! 말띠 CEO

### ◆산업

1966년 핵심 경영자는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과 BMW그룹코리아 한상운 대표이사다.

허기호 한일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은 혁정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66년생이다. 한일홀딩스의 주요 계열사인 한일시멘트는 2025년 7월 한일현대시멘트와 합병 후 내수 점유율 20%를 넘기며 업계 1위로 올라섰다. 다만 전방산업인 주택건설경기의 계속되는 침체로 업계 전체가 비상경영을 하고 있는 만큼 2026년은 업계 리딩 기업의 행보와 난국 타개를 위한 허 회장의 리더십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수입차 업계에서는 BMW그룹코리아 한상운 대표이사가 말띠를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1966년생인 한 대표는 지난 2019년 BMW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된 이후 약 7년간 회사를 이끌며 미래 지향적 브랜드로 성장을 이끌었다.

1978년생은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이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은 금호타이어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금호석유화학으로 옮겨 수지영업임원과 영업본부장을 거쳐 2022년 총괄사장에 올랐다. 그는 석유화학 업황 침체 속에서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주력해 왔다. 특히 공격적인 신사업 확대보다는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 용퇴 이후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며 3세 경영 체제를 이끌고 있다.

### ◆IT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1966년생 말띠 경영인이다. 김범수 창업자는 한계임 창업을 거쳐 카카오를 설립하며 모바일 메신저 기반 플랫폼 산업의 지형을 바꾼 인물로 평가받는다. 카카오는 키카오톡을 중심으로 콘텐츠, 팬테크, 모빌리티, 커머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국내 대표 벽돌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 창업자는 한 때 국내 최고 부호로 꼽히며 'IT 벤처 신화'의 상징이 됐지만, 최근에는 계열사 회장과정에서의 지배구조 문제와 사법 리스크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CA협의체 의장직만 유지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요구 속에서 카카오의 다음 행보를 가늠하는 핵심 인물로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

이수진 애놀자 총괄대표는 1978년생 말띠 창업이다. 숙박 플랫폼에서 시작해 혁신을 거듭하며 종합 여행 플랫폼 '놀유니버스'를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 총괄대표는 최근 방한 여행과 해외 여행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해 글로벌 전용 플랫폼 '놀월드' 육성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더십 개편을 단행하며 글로벌 도약의 승부수를 띠웠다. 책임경영 강화와 AI 전환(AX) 가속화를 위해 계열사 대표를 전면 교체하고 지주사 대표직을 신설했다. 컨슈머 플랫폼(놀유니버스)에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 마케팅 전문가 이철웅 대표를, 엔터프라이즈에는 기술 전문가 이준영 대표를 각각 선임했으며, 신설된 지주사 애놀자홀딩스에는 재무·투자 전문가 최찬석 대표를 나쳤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 ◆유통

김석수 동서식품 회장은 1954년생 말띠 경영인이다. 김 회장은 동서그룹 창업주 고(故) 김재명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형인 김상현 전 고문과 함께 협제 경영을 통해 '맥심' 신화를 일구며 동서식품을 국내 커피 시장 부동의 1위로 이끌었다. 현재는 3세 승계를 준비하며 실질적인 경영에선 물러난 상태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1978년생 말띠로 유통업계 판도를 바꾼 혁신가다. 로켓배송을 앞세워 쿠팡을 국내 최대 유통 기업으로 키워냈으며, 뉴욕 증시 상장과 분기 흑자 전환 등 굵직한 성과를 달성했다. 물류 혁신과 데이터 기반 경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 경계를 무너뜨린 핵심 인물이지만, 최근 정보공개 유출 사태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1954년생 CEO

동서식품 김석수, '맥심 신화' 시장 1위 등극 알테오젠 박순재, 올해 코스닥→코스피 이전

### 1966년생 CEO

BMW 한상운, 7년간 미래지향 브랜드로 성장 카카오 김범수, 모바일메신저 플랫폼 지향 전환

### 1978년생 CEO

금호석화 박준경, 기존사업 수익성 극대화 집중 쿠팡Inc 김범석, '로켓배송' 물류혁신 대전환

### ◆제약·바이오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비알코리아 전략총괄임원)도 1978년생 말띠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미국 3대 버거 '쉐이크쉑'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들여오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현재 비알코리아(베스킨라빈스·던킨)와 섹타나인 등을 통해 그룹의 디지털 전환과 젊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은 1990년생 젊은 말띠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CJ제일제당의 글로벌 비비고 사업과 식물성 식품 등 미래 신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최근 북미 시장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룹 내 입지를 넓히며 차기 승계 구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뷰티 업계에서는 이병만 코스맥스 대표와 이지영 한국피앤지(P&G) 대표가 1978년생이다. 이병만 대표는 올해 정기 임원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해 세계 1위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지영 한국피앤지 대표는 지난 2022년 한국피앤지 역대 한국인 대표 중 최연소 인물로 등용돼, 기업 대표 브랜드를 국내 유통 시장에 안착시킨 것으로 평가받는다.

### ◆제약·바이오

전통 제약사 오너로는 허일섭 GC녹십자홀딩스 회장이 1954년생 말띠 경영인이다. 허일섭 회장은 개성상인으로 알려진 고(故) 허재경 한일시멘트 명예회장의 5남으로, 허재경 회장의 2남인 고(故) 허영섭 GC녹십자그룹 창업주와 협제 경영으로 GC를 일궜다. 현재는 허영섭 회장의 두 아들 허은철 GC녹십자 대표·허

용준 녹십자홀딩스 대표와 GC를 이끌고 있다.

박순재 알테오젠 회장도 1954년생 말띠다. 알테오젠을 창업한 K바이오 선구자로 회사 비전과 발전에 역량을 쏟고 있다. 알테오젠은 정맥주사 제형을 피해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차세대 모달리티 기반 신약개발을 위한 파트너사로 입지를 다졌다. 국내 증권시장에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섰고 올해 코스피 이전 상장에 착수할 계획이다.

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1966년생 말띠 리더다. 진양곤 회장은 HLB그룹 내 계열사 경쟁력을 한 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핵심 사업 회사 HLB의 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나며 이사회 의장으로 통솔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진 회장은 2017년부터 강조해 온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그룹 내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호일 웹트론 대표도 1966년생 말띠다. 일찍이 1990년대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LG생명과학 등을 거쳐 1997년 웹트론을 설립한 국내 바이오벤처 1세대다. 웹트론은 약물전달기술 스마트데포를 독자 개발했고 글로벌 바이오제약 시장에서 베리마 일라이 릴리 등과 협업하는 등 첨단 바이오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안재현 SK케미칼 대표도 1966년생 말띠다. SK그룹 내 투자 및 인수합병 전문가로 2023년부터 SK케미칼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제약(파마)사업 매각을 철회하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도 국내 바이오텍과 신약 공동연구 협력을 체결하는 등 고부가치 포트폴리오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 ◆금융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966년생으로 기획 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을 거친 정통 경제정책 전문가다. 예일대 MBA 출신으로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역임하며 정책과 감독 양측면에서 폭넓은 시각을 쌓았다. 회장 취임 이후 그룹 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와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두지휘하며 조직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도 1966년생으로 농협 내부에서 전략·인사·디지털·영업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올라운더' 리더다. 올원뱅크사업부장과 디지털전략부장 등을 역임하며 높은 디지털 이해도를 갖췄으며, 취임 후 디지털 전환(DT)과 영업 네트워크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경영 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주력하며 은행의 미래 경쟁력을 다지고 있다.

김태현 삼성카드 대표는 1966년생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서 전략·기획·영업을 섭렵하며 그룹 카드사업 자판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대표 취임 이후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데이터 기반 마케팅 고도화, 구독형 서비스 확대 등 혁신 전략을 추진 중이다. 가맹점 수 수료 인하 등 업황 악화 속에서도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곽희필 ABL생명 대표 역시 1966년생 말띠로 상품·영업·전략 등 보험업 전반을 경험한 실무형 리더다. 대표 취임 후 재무 건전성 제고와 비용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는 보험 시장 환경 속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재정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 지난해 상장사 시가총액 급증… ‘삼성·SK·LG엔솔’ 최상단

코스피 3478조, 코스닥 506조  
1조 클럽 76곳·10조 클럽 17곳↑  
삼성에피스·LGCNS ‘화려한 데뷔’

작년 한 해 코스피 불장의 영향으로 시가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사가 76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고환율·관세라는 악재에도 시가총액 기업들이 급증한 배경으로 두 차례에 걸친 상법개정 등 증시 정책을 꾸를 수 있다. 인공지능(AI)으로 범용 D램 수요가 폭등하면서 반도체주가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총 1조 클럽’은 2024년 말 247곳에서 지난달 30일 323곳으로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0사에서 238사로, 코스닥시



지난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삼성전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스

장 상장사는 같은 기간 47사에서 85사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이 10조원이 넘는 ‘시총 10조 클럽’ 반열에 오른 종목

도 대폭 늘었다. 시가총액 10조원에 이 름을 올린 곳은 작년 말 기준 62개로 전년(45개)보다 17개 증가했다.

시가총액 10조 클럽 종목 대다수

(58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였고, 코스닥 상장사는 알테오젠(약 24조 원), 에코프로비엠(약 14조3000억 원), 에코프로(약 12조3000억 원), 에이비엘바이오(약 11조원) 등 4개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시가총액이 123.5% 급등해 ‘시총 1000조원’ 대를 가시권에 넣은 삼성전자(약 710조원)가 명단 최상단을 유지했다. 이어서는 SK하이닉스(약 474조 원), LG에너지솔루션(약 86조원), 삼성바이오로직스(약 78조원), 삼성전자우(약 73조원), 현대차(약 61조원) 등이 뒤를 따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인적분할로 재상장된 삼성에피스홀딩스(약 18조5000억 원), 작년 신규상장된 L

G씨엔에스(약 5조9000억 원), 서울보증보험(약 3조5000억 원), 대한조선(약 2조6000억 원) 등도 시총 1조 클럽에 가입하며 화려한 데뷔에 성공했다.

이른바 ‘빌리언 달러 클럽(Billion Dollar Club)’으로 불리는 시총 1조 이상 기업은 주식 시장에선 의미 있는 기준으로 통한다. 하지만 코스피 1조 클럽에 속하는 323개사의 시총은 모두 합쳐봤자 미국 회사 한 곳의 시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스피 1조 클럽을 포함한 전체 상장사들의 시총을 모두 합하면 약 3984조원(코스피 3478조원, 코스닥 506조원)인데, 미국 앤비디아의 시총은 4조5320억 달러(약 6521조원)에 달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금융기관·단체장 신년사



### “금융 대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안정·소비자보호’ 기본 책무 빈틈없이 수행할 것”

“2025년이 시급한 민생회복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 원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미래를 여는 생산적 금융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 어 내겠다. 정부, 금융, 산업이 모두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는 데에도 힘쓰는 한편,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의 문턱은 낮추고, 부담은 덜어내는 포용적 금융도 확대하겠다.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기여를 제도화하겠다”면서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하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금융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자 ‘정말 어려울 때 함께하는 금융’으로 거듭나도록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억원 위원장은 또한 “마지막으로 금융이 국가경제의 안전판이자 국민의 청지기가 되도록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겠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 산업재편 등 잠재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금융안정을 최대한 지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

### “소비자 중심 감독원칙 확립”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인력 부족 등 금감원 구조적 과제 해결 최선을 다할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비평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에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낙후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일마당선 자세로 변화 주도”

〈一馬當先〉

####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포용금융 강화 필요… 소비자 신뢰 자연스럽게 촉적돼야”

“금융산업은 경제의 혈맥이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신뢰·포용·선도에 집중하자.”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일마당선(一馬當先·앞장서서 길을 여는 말)의 자세로 변화를 주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신뢰 ▲포용 ▲선도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금융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자연스럽게 촉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성의 토대 위에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율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포용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가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서민·청년·자영업자 등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포용금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회장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산업과 기업의 혁신수요를 뒷받침 해야 한다”며 “금융산업도 자체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고도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혁신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플랫폼 금융 확대 등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 디지털휴먼플랫폼 (Klever One)

###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le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 가전 한계 넘는다… 삼성·LG, 전장·SDV로 성장축 이동

## 완성차 협력 '미래차 부품' 선점

**삼성** BMW 전기차에 반도체 공급 배터리·디스플레이 넘어 SDV 핵심 축  
**LG AI전장 솔루션으로** 모빌리티 공략 CES서 AI캐빈 공개, 미래차 비전 제시

삼성과 LG가 전장(자동차 전기·전자 장치) 사업을 그룹 차원의 중장기 성장 축으로 앞세우고 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속에서 가전 사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무게중심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리서치 앤 마켓츠는 지난해 7월 기준 전장 시장 규모가 2648억달러에서 연평균 9.4% 성장해 2034년에는 593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센서와 카메라 등 차량용 전자부품 채택이 확대되면서 전장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은 기존 배터리·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형성해 온 완성차 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반도체 분야로도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CES 2026에서 최신 전장 기술에 AI를 적용한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 지난해 11월에도 칼레니우스 회장은 방한해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SDV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LG전자는 오는 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CES2026'에서 AI를 결합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솔루션은 최신 전장 기술에 AI를 적용해 탑승자 맞춤형으로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완성차 고객사를 대상으로 차량용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AI 캐빈 플랫폼'도 공개할 계획이다. AI 캐빈 플랫폼은 시각 정보를 분석하는 비전 언어 모델(VLM)을 비롯해 대형 언어 모델(LLM), 이미지 생성 모델 등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들을 LG 전자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적용한 솔루션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장 사업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디지털 콕핏, 텔레매틱스, 디스플레이 등 차량 내 경험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주요 대기업들은 전기·전자 기술과 IT 역량,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을 통해 축적한 사용자 경험 노하우를 결합해 SDV 전환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자는 최근 자사 프리미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720'을 독일 완성차 업체 BMW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인 '뉴 iX3'에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뉴 iX3'는 BMW의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이 적용되는 첫 모델로 삼성전자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주요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가 따른다.

삼성전자는 이번 뉴 iX3를 시작으로

향후 BMW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과 내연기관차 모델에도 엑시노스 오토 칩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 7시리즈 모델에는 가장 최신 제품인 5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기반의 '엑시노스 오토 V920'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장 사업을 통한 반도체 투자 확대 흐름은 국내 반도체 수출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2.2% 증가한 수치다.

LG 또한 그룹 차원에서 전장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는 자동차 전자 부품들을 생산하며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LG그룹 주요 계열사 수장들과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그룹 회장과 매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를 마련하며 파트너십을 다져오고 있

## LG전자, 항공소재 입고 '그램' 진화 선언

CES 2026서 '그램 프로 AI' 공개  
에어로미늄 적용, 초경량·내구 강화  
엑사원 3.5 탑재로 멀티 AI 구현

LG전자가 항공 소재와 엑사원으로 더 강력해진 2026년형 LG 그램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오는 6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LG 그램 프로 AI 2026(모델명: 16Z90U·16Z95U)을 첫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에는 항공·우주 산업에서 활용되는 신규 소재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내구성을 높이면서도, 초경량 노트북만의 휴대성을 지켜냈다.

특히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EXAONE) 3.5'를 탑재해 ▲문서 요약 ▲검색 ▲번역 등 다양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활



LG전자가 CES 2026에서 2026년형 LG 그램을 공개한다. 신규 소재인 '에어로미늄(Aerominium)'을 적용해 내구성은 강화했고, 엑사원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AI 경험도 제공한다.

/LG전자

용할 수 있고, 코파일럿 플러스(Copilot+) PC까지 모두 쓸 수 있는 '멀티 AI'가 차별화된 AI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

2026년형 LG 그램에는 항공·우주 산업에서 주로 쓰이는 신규 소재인 '에어로미늄'을 적용해 초경량 노트북이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했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의 합금인 에어로미늄은 두 금속의 장점을 모두 갖춰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은 탁월하다.

실제 LG전자만의 '경량화 설계 공법'으로 에어로미늄을 적용한 16형 그램프로의 본체 무게는 1,199g에 불과하다. 스크래치 저항력이 35% 이상 강해졌을 정도로 내구성은 높이면서도 가벼움은 유지했다. 에어로미늄 특유의 메탈 느낌 마감으로 외관은 더욱 고급스러워졌다.

2026년형 LG 그램은 고객의 사용환경과 패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는 멀티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 없는 온디바이스 AI인 '그램 챗 온디바이스'는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엑사원 3.5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돼 다양한 AI 기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 BYD, 韓 전기차 시장 '정착 단계' 진입

아토3·씨라이언7 흥행 주력 라인 구축  
신차투입·유통확대 올해 성장 분기점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2025년 한 해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실험적 진입'이 아닌 '의미 있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 전기차 수요둔화, 보조금 축소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연간 판매 6000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단순한 신차 효과에 그치지 않고 가격 경쟁력과 제품 구성, 유통 전략이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BYD코리아는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4955대를 판매했다. 12월 출고 물량을 더하면 연간 판매량은 약 6000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시장 진출 첫해에 이 같은 성적을 거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BYD코리아 성과 배경에는 가격 경쟁력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4월 국내에 첫선을 보인 콤팩트 전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아토3'는 상위 트림 기준 3300만원, 보조금 적용 시 2000만원 후반에 구매가 가능해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빠르게 끌어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적 판매량은 2600대를 넘어섰고 이는 '가성비 전기차'라는 이미지를 단기간에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씨라이언7은 BYD의 국내 전략이 단순한 저가 공세를 넘어섰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출시 후 3개월 동안 2000대 이상이 신규 등록되며 같은 기간 BYD 전체 판매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중형 SUV 수요가 두



BYD Auto 송파전시장 외관. /BYD코리아

터운 40~50대 개인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흡수되며 사실상 브랜드의 주력 차종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경쟁력에 더해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객 접점 전략이다. BYD는 한국 시장 진출 초기부터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확충에 공격적으로 나서며 '보여주는 브랜드'를 지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약 30곳의 전시장과 16개의 서비스센터를 구축했고, 특히 스타필드 등 대형 복합쇼핑몰 내 전시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차량을 접하도록 했다. 차량 구매 전 실차 체험을 중시하는 한국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겨냥한 전략이라는 평가다.

BYD코리아는 올해 한국 시장 확장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 안착한 해였다면 올해는 신차와 마케팅을 통해 체급을 키우는 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전략이다. 소형 전기 해치백 '돌핀', 중대형 세단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 등 다양한 후속 차종 투입이 거론되고 있고 전시장·서비스센터 추가 확충과 체험 중심 마케팅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가격 동결에도 수요 붕괴… 철근침체 지속

전기·스크랩 동결로 가격 보합  
건설 경기 부진에 철근 수요 위축  
가동률 하락에 구조조정 압박

전기요금과 철스크랩 가격이 동결되며 철근 기준가격은 유지되고 있지만, 건설 경기 회복 지연과 철근 투입의 후행 구조가 맞물리면서 올해에도 철근 시장은 뚜렷한 반등 없이 현 수준의 시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기를 k

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도 변동이 없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5분기 연속 동결된다.

철근 가격 역시 당분간 보합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철근 기준가격 산정의 핵심 변수인 분기 평균 철스크랩 가격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사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전기요금과 철스크랩 가격 모두 변동이 없으면서 철근 기준가격을 조정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수요다. 건설 부문은 국내 철강 내수의 약 30~40%를 차지하는 핵심 수요처로, 철근과 형강 등 봉형강류는 건설 경기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재 시황은 물론 중기 전망도 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철근은 대표적인 후행 자재로, 건설수주 이후 착공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다 착공 이후에도 철근 투입이 통상 2~4분기, 길게는 18개월의 시차를 두고 집중되는 구조다.

/유혜운 기자 dhaledhale@

# KT, 위약금 면제 첫날 6000명 이탈… 통신시장 다시 요동

SKT 4661명, LG U+ 1225명 이동  
알뜰폰 이용자 포함 1만명 이탈  
위약금 종료일인 13일까지 지속

KT가 소형기지국(펩토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시행한 첫날, 6000여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번호이동으로 빠져나갔다.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당시 한 달간 90만 건에 육박하는 번호이동이 발생했던 전례가 있어, 새해 초부터 통신 시장이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통신업계 집계에 따르면, KT가 한시적 위약금 면제를 시작한 첫날인 지난해 12월 31일, KT망에서 빠져나간 번호이동 가입자(알뜰폰 제외)는 총 588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661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으며, 1225명이 LG유플러스로 향했다.

알뜰폰(MVNO) 이용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탈 규모는 더욱 커진다. 같은 날 KT를 떠난 전체 가입자는 1만42명에



이동통신 판매점이 밀집한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의 모습. 사람들이 휴대폰 구매를 위해 판매점에 앉아있다. /유혜은 기자

달했다. 시장 전체 번호이동 건수 또한 3만5595건을 기록하며 평소 하루 평균(약 1만5000건) 대비 2배 이상 폭증했다. 위약금이라는 ‘족쇄’가 풀리자마자 보안 사고에 실망한 가입자들이 대거 이동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쟁사들은 KT 가입자를 흡수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 갤럭시 S25 시리즈와 Z플립7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90만 원대 중 후반, Z폴드7에는 최대 100만 원대 중후반의 리베이트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17 역시 80만 원대 초반의 리베이트가 형성됐다. 사실상 ‘공짜폰’이나 다름없는 조건들이 속출하면서 가입

자들의 이동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SKT는 대대적인 대대적인 T멤버십 혜택을 앞세워 가입자 확보와 점유율 성장을 나눴다. 31일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SKT는 1월 중순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게 메가커피와 파리바게뜨 등 1만 9000원 상당의 쿠폰을 자동 지급하며, 건강검진 최대 49% 할인과 롯데월드·비발디파크 50% 할인 등 강력한 생활 밀착형 혜택인 ‘T day’와 ‘0 day’를 운영한다.

특히 과거 해지 고객이 재가입할 경우 기존 등급과 가입 연수를 그대로 복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는 최근 KT의 위약금 면제 시대로 발생한 대규모 번호이동 수요를 흡수하고 이탈했던 고객을 다시 불러모아 시장 점유율 40% 선을 확실히 굳힐 것이다는 전략적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발생했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당시의 시장 상황과 판박이다. 2025년 당시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보상으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

했고,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월 번호이동 건수가 90만 건을 돌파하는 등 시장이 극도로 과열됐다. 당시 네 달 동안 약 8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며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40% 선이 무너진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KT 사태 역시 위약금 면제가 종료되는 1월 13일까지 상당한 규모의 가입자 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이은 해킹 사고로 이용자들의 피로감과 보안 불안이 극에 달해 있어, 보상 프로그램보다는 ‘이동’ 자체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신 3사 모두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 증명된 상황에서, 이용자들은 혜택보다는 단말기 교체 시점과 맞물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KT는 오는 1월 13일까지 위약금 면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올해 ‘AI 기본법’ 시행… 최소 1년 계도기간 운영

기업 상당수, 체계·시스템 못갖춰  
계도기간 동안 기업 설명회 등 제공  
업계 “명확한 기준 제시도 중요해”

올해부터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AI 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정부는 기업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처벌 중심의 규제가 적용되며, 제도 안착과 현장 적응에 초점을 맞춘 단계적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1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의무와 기준을 한꺼번에 적용하기보다는, 기업들이 내부 시스템과 서비스 구조를 점검할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다.

AI 기본법은 고위험 AI의 정의와 관리 기준, 이용자 보호 원칙, 투명성 확보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 규제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 동안 제도와 기술 현장이 조율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알고리즘 설명 책임과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위험 평가 절차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AI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분야별 가이드라인과 개별 법률로 규제가 분산돼 있었다.

문제는 준비 기간이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상당수는 법이 요구하는 내부통제 체계와 위험 관리 시스템을 아

직 갖추지 못한 상태다. 대기업과 글로벌 플랫폼은 비교적 대응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력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계도기간 운영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산업계 우려가 깔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치”라며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기업 대상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제공, 자율 점검 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기준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고위험 AI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과 점검 중심의 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계도기간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준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며 “모호한 기준이 남아 있으면 투자와 서비스 출시를 미루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유럽연합(EU) AI 법 등 강한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며 “국

내 법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해석 여지가 크면 국내 기업만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의 핵심을 ‘속도 조절’로 보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무력해지고, 과도한 규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계도기간은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산업과 규제 간 균형점을 찾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일괄적인 제재보다는 위험 수준과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중심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피해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만 강한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AI 기본법 시행은 국내 AI 산업이 제도권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 시행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 여부다. 계도기간 1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그 안에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AI 기본법은 ‘성장 기반’이 될 수도,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최빛나 기자 vitra@

## 식당 10곳 중 6곳, ‘노쇼’ 경험… 중기부, 피해예방·지원 강화

노쇼 1회당 평균 44만원 손실액  
이용액 최대 40% 위약금 설정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0곳 중 6곳이 최근 3년간 예약부도(노쇼) 피해를 경험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식, 일식, 중식 등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21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에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해당 기간 노쇼는 평균 8.6

회 발생했다.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 3000원으로 3년간 평균 381만원 꽂이디. 특히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해 식재료 폐기 등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에 달해 소상공인의 분쟁 대응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

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외식업의 경우 기준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던 노쇼 위약금 기준이 올라갔다.

또 분쟁조정 시 주방 특선(오마카세),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선 사업자가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

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 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넓히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도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 지난해 韓 최다사용 모바일 앱 ‘카카오톡’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 빈도와 사용 시간 모두에서 카카오톡이 다른 앱을 앞섰다.

카카오톡은 메신저 기능을 넘어 송금, 콘텐츠 소비, 커뮤니티 기능까지 아우르며 일상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개인 간 대화뿐 아니라 업무와 정보 공유 수단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평가다.

/최빛나 기자

## 병오년 새 도약

# 유통업계, '붉은 말' 전면에 반값할인·대형팝업 등 행사

백화점 신년 세일… 의류 등 최대 50% 대형마트·이커머스 먹거리 할인 대전 편의점 '붉은 말' 기획 이색상품 선봬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유통업계는 신년 세일과 붉은 말 테마 이색 마케팅을 쏟아내며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반값 할인'과 '체험형 팝업'을 전면에 내세웠고, 편의점과 이커머스는 말의 특성을 재치 있게 해석한 기획 상품과 파격적인 특가로 새해 포문을 열었다.

백화점 업계는 새해 첫날 휴무 후 오는 1월 2일부터 일제히 신년 정기 세일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18일까지 '2026 신년 정기 세일'을 진행한다. 총 41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을 제공한다. 본점 지하 1층에서는 유니클로 히트텍 팝업스토어를, 잠실점에서는 인기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11일까지 '신세계 페스타'를 통해 패션·리빙 등 300여 개 브랜드를 최대 70% 할인한다. 'Good福 DAY' 특가 행사를 통해 스케쳐스, 브라운브레스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파격가에 내놓으며, 특히 아동 브랜드 압소바의 출산 세트를 60% 이상 할인된 9만9000 원에 한정 판매한다. 현대백화점은 이달 18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점포에서 '더 세일'을 열고 300여 개 브랜드의 가을·겨울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무역센터점은 타미힐피거, 빈폴 등이 참여하는 '트래디셔널 패션 대전'을 진행하며, 더현대 서울은 '해리포터 위자드몰' 팝업스토어를 열고 영화 속 감동을 재현한 굿즈를 선보이며 팬덤 공략에 나선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는 1월 1일부터 고물가 부담을 낮추는 먹거리 할인 대전에 집중한다.

이마트는 이달 7일까지 '고래잇 페스타'를 열고 보양식과 생필품을 특가에 푼다. 1일부터 4일까지는 '초저가 4일장'을 통해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 350톤을 반값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2026년부터 월 1회 정기 행사로 개편한 '통큰데 이'를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다.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삼겹살과 목심을 반값에 제



GS25, CU 등 편의점 업계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말의 주식인 당근을 활용하거나, 말을 활용한 상품군을 선보인다.

/GS25

공하며, 1등급 한우 등심(2~4일)과 활대게 역시 50% 할인한다. 흠플러스도 7일까지 '반값/하나 더 데이'를 개최한다. 호주산 안심과 캐나다산 보리먹인 돼지 삼겹살을 최대 50% 할인하고, 남해안 생굴과 매생이 등 제철 수산물도 반값에 내놓는다.

이미커스업계도 할인 열기가 뜨겁다.

G마켓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G락페'를 열고 한우(1++등급)를 최대 65% 할인한다. 비발디파크 리프트권, 나이키 가방 등 테마별 특가 상품도 매일 자정 공개한다. 롯데온은 이달 11일까지 '필코노미' 트렌드에 맞춰 뷰티·패션 브랜드 기획전을 열고 빈폴패밀리, 노스페이스 등 인기 브랜드 겨울 의류를 최대 55% 할인해 선보인다.

편의점 업계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말의 특성을 활용한 위트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CU는 말의 주식인 '당근'을 콘셉트로 한 간편식 4종을 준비했다. 당근계란밥 위에 말발굽 모양의 칼바사 소시지를 통째로 올린 '붉은말 칼바사 정식'과 당근 모양으로 김에 구멍을 낸 '당근 명란마요 삼각김밥' 등 재미와 맛을 동시에 잡은 상품들이다. GS25는 인기 캐릭터 '춘식이'가 말탈을 쓴 디자인을 적용한 간편식 7종을 선보였다. 또한 '디아블로 붉은 말의 해 와인', '준마이 다이간조 승리마', '조니워커 블루 말띠 에디션' 등 말 이미지를 입힌 한정판 주류 라인업을 대폭 강화해 애주가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K-기업, 글로벌 임상 속도 비만치료 등 성장동력 강화

제약·바이오업계 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

HK이노엔 '케이캡' 블록버스터 도전

HLB '리보세라닙' 美 품목허가 추진

메디톡스 3년 연속 최대 연매출 경신 목표

한미약품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정조준



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정' /HK이노엔

'티닙'에 대해서도 미국 품목허가를 동시에 추진하며 후속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온 가운데, 기존 HLB사이언스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항암에서 패혈증, 대사질환, 면역질환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

메디톡스도 올해 미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받는다.

메디톡스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3개 분기 연속 매출 600억원을 올리는 등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그 결과 3년 연속 최대 연매출 경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실적에는 고순도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릭스'의 글로벌 시장 안착이 주효했다. 메디톡스는 뉴릭스 수출국을 아시아, 유럽, 남미 등으로 다변화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바이오신약 'MT10109 L'을 신성장동력으로 확보한 상황이다. MT10109L은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균주 배양, 원액 제조 등 전체 제조 과정에서 동물 유래 성분 사용을 배제한 것이 특징이다.

첫 국산 비만치료제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한미약품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문도 두드리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말 독자 개발한 '에페글레나타이드'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체질량지수 30kg/m<sup>2</sup> 미만 여성에서 12.20%의 체중 감소율을 기록해 초고도비만이 아닌 한국인 맞춤형 치료제로 전망된다.

한미약품은 이러한 차별화된 연구개발 역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K신약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HLB그룹, 김태한 신임회장 선임

(前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바이오 부문 총괄… 중장기 성장 모색  
김 회장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확립"

HLB그룹은 김태한 전(前)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바이오 부문 총괄 회장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HLB그룹 내 바이오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김태한 신임 회장이 축적해온 글로벌 신뢰와 네트워크가 HLB그룹 전반에 실질적인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신임 회장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경영전략 수립, 신사업 추진 등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초대 대표이자



로서회사설립부터 기업공개, 글로벌 로드쇼, 해외 고객 확보까지 이끌었다.

HLB그룹은 김 신임 회장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태한 HLB그룹 바이오 부문 총괄 신임 회장은 "연구개발 성과가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업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연구개발과 사업, 글로벌 전략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확립해 HLB그룹 바이오 사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LG생활건강, 美 '닥터그루트' 팝업 성황

### 뉴욕서 'K-헤어케어' 기술력 소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2월 11~12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닥터그루트' 팝업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닥터그루트는 고급 더마 두피관리 브랜드로, 행사장에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두피 진단 서비스를 선보였다. 전문적인 두피 분석과 맞춤형 제품 추천으로 브랜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둘렀다.

또 닥터그루트를 상징하는 색상인 강렬한 보랏빛으로 꾸민 트럭으로 브랜드 존재감을 알렸다. 실제로 이번 행사기 간 동안 닥터그루트는 총 1679명의 방문객을 맞았다. 둘째 날에는 영하의 기온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첫날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최대 2시간의 대기 줄이 생겼다.

특히 5000만명 이상 SNS 팔로워를 보유한 메가인플루언서 '브렛맨 랙'은 양일 모두 팝업 트럭에서 팬들과 소통했다. 맷 러브스 헤어, 립스틱 레즈비언, 비아리아 등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들도 직접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팝업을 소개했다.

닥터그루트의 팝업이 흥행하면서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관련 콘텐츠 노출 수는 3000만 회를 돌파했다. 행사 직후 1500만 회에서 조회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닥터그루트 관계자는 "차별적인 헤어 케어 기술력에 'K 트렌드'를 접목한 팝업 트럭의 특별한 경험이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고객들과 교감하는 브랜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 신제품

#### 한미사이언스

#### 완전두유 더진한 렌틸콩



한미사이언스는 '완전두유 더진한 렌틸콩 무가당(사진)'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당 함량을 낮추면서도 원물 본연의 영양과 깊은 풍미를 그대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한미사이언스만의 '전두유 특허 공법'으로 렌틸콩을 통째로 갈아 넣어 진하고 고소한 맛을 구현했다.

또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등을 더해 영양가를 높였고 감미료, 증점제, 향료 등 불필요한 첨가물을 배제했다.

/이청하 기자

인터파크 평점 9.4!

현실 캐릭터들의 집합소 '올웨이즈 편의점'으로 오세요!

뮤직드라마

# 불편한 편의점



Always

24  
Times

MERRY  
SALE

2023.4.8 SAT - OPEN RUN 올웨이즈스퀘어

원작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원작자 : 김호연) |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홍현우 | 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사진 강상욱

주최·제작 극단 지우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interpark | 문의 02-332-4902

# 대출 부담 확 낮췄다… 서울시, 中企·소상공인에 2.4조 투입

금리인하·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취약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설  
고금리 대출 '희망동행자금' 전환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 공급  
일자리·창업·배달 참여기업 확대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나선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신설과 고금리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희망동행자금' 확대,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공급도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기업, 공공배달앱 이용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비용상승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협의와 조정



/손진영 기자

을 거쳐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 협력자금의 기산금리를 기존 1.7~2.2%에서 1.6~2.1%로 0.1%p 인하한다. 아울러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전면 면제한다.

16개 시중협력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스텐다드차타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경남, 부산, iM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 신협 등이다.

이로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1800억원 ▲시중은행 재원으로 자금을 융자, 대출금리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시중은행 협력자금(변동금리, 이자차액보전)' 2조200억원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특별보증)' 2000억원을 각각 공급한다.

자금 신청은 2일부터 접수하며, 올해

신설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과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오는 3월 중)'은 은행 협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먼저 경영이나 상황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별도 공고 예정)되면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희망동행자금'(대한·갈아타기대출)은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용 기업에서 '민간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 까지 대상을 넓혀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희망동행자금은 3000억원 투입될 예정으로 경영,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또는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 기존에 면책기업, 신용회복 완료기

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기업까지 확대해 3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시는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 원 확대해 총 2500억원 공급한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작 진입을 돋기 위해 '창업기업자금'도 전년 대비 200억원 늘려 총 12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공정한 배달 환경 조성에 동참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한은행이 16억 원 보증 재원으로 출연, 공공배달 앱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 200억원을 공급한다.

그밖에 별도 자격 요건 없이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 자금'은 전년 대비 670억원 증액해 공급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불수능에도 주요 10개대 정시 8.2만명 몰려

경쟁률 5.29대1… 전년과 비슷  
연세·서강·한양대 지원자 증가  
서울·고려·중앙대는 지원 감소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중앙대 등 주요 10개 대학 전체 지원자 수는 8만2889명으로, 지난 해보다 0.8% 늘며 경쟁률도 5.29대1을 기록했다. 영어 불수능과 사탐련, 의대 모집정원 축소 등 대형 변수 속에서도 상위권 수험생들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소신 지원에 나선 결과다. 다만 올해 정시는 수능 난이도보다 대학별 모집군 이동과 선발방식 변화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합격선과 추가합격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포함한 주요 10개 대학 전체 지원자 수는 8만2889명이다. 지난해(8만2244)명보다 645명(0.8%) 늘어난 수치다. 평균 경쟁률은 5.29대1로, 5.30대 1이던 지난

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은 경쟁률과 지원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서강대는 전년 대비 1024명(20.1%)이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한양대도 962명(10.8%) 증가했다. 이어 △연세대 538명(6.9%) △이화여대 213명(3.6%) △한국외대 196명(4.1%) △성균관대 166명(1.6%) 순으로 지원자 수가 늘었다.

반면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등 4개 대학은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모두 하락했다. 전년 대비 지원자 수는 ▲중앙대 1291명(10.2%) ▲고려대 956명(10.1%) ▲경희대 191명(1.6%) ▲서울대 16명(0.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요 10개 대학에서 지원자수 변화가 나타난 데에는, 경쟁 대학의 모집군 이동과 선발 방식 변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올해 정시는 영어 불수능과 사

탐련, 의대 모집정원 축소에 더해 정시 제도 자체의 변화가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 모집군을 지난해 다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시키면서 해당 모집단위 지원자 수가 1881명에서 98명으로 급감했다. 서강대는 SCIENCE기반자유전 공학부를 나군에서 다군으로 옮기며 다군 지원자 수가 813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화여대 간호학부도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해 지원자 수가 251명으로 증가했다.

선발방식 변화도 변수다. 성균관대는 주요 10개 대학 중 처음으로 정시에서 표준점수 대신 백분위 점수를 반영했고, 서강대는 기존 수학 중심 기중치에서 국어 또는 수학 우수 과목에 최고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해당 대학뿐 아니라 타 대학 지원자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시 추가합격과 합격선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 경남도, 中企 육성자금 1.1조 지원

관세장벽 대응·AI전환에 정책자금 집중  
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평가제 도입해 혁신 기업 선별 지원

경남도는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돋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고 밝혔다.

올해 지원의 핵심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장벽 대응과 디지털 전환(AX) 고도화다. 경남도는 수출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정책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산업 육성자금'을 통해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스마트 AI 혁신·AX 전환' 및 '신성장 혁신 기업' 육성 자금을 신설해 제조업의 미래형 산업 전환을 뒷받침한다. 지식문화 서비스 산업과 청년 창업·벤처 기업 지원 규모도 확대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올해부터는 특별자금 평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선착순 접수에서 벗어나

실적과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혁신 기업들에 자금 지원 기회를 제공한다.

2026년도 1분기 일반자금 신청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된다. 설 연휴 전 신속 접수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별자금은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1월 말 추가 공고 후 2월 중별도 접수된다.

경남도는 2025년 1682개사에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000억원을 지원했으며, 2026년에도 신산업 분야 중심 자금 지원으로 지역 경제 재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태안화력1호기 발전종료 기념식

## 충남도, 태안화력 1호기 30년 역사 마침표

전국 7번째, 도내 3번째 석탄화력 폐지

30년 동안 충남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발전소 1호기의 불이 마침내 꺼졌다.

도에 따르면,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이 31일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발전사 임직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가동을 시작한 이래 30년 6개월간 전력

을 생산하며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충남과 국가 산업 전반의 성장에 기여해왔다.

이번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일곱 번째,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 폐지 이후 세 번째 사례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후속 대응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 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추진

R&D·해외 실증에 160억 이상 투입

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공지능(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일대를 '첨단체조존(ZONE)'으로, 수성알파시티 일대를 'AI혁신 존'으로 각각 지정하고 로봇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분야 기업에는 2027년까지 총 85억원을 투입하고, 해당 기업들은 해외 연구기관과 'AI로봇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비R&D 분야 기업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및 해외 인증 사업을 위해 모두 83억원을 지원하고, 기업들은 간호, 배송, 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로봇 산업 관련 R&D와 비R&D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공모를 실시해 총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또 2027년까지 혁신특구에 AI로봇 영상데이터 보호·관리 및 사물레이션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총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 쿠팡과 열흘간의 사투



김승호의  
시선

김장을 위해 절임배추를 쿠팡으로 주문했다. 두박스를 주문했지만 예정된 날짜까지 배송이 안된다고 해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박스가 집으로 배달됐다. 업체의 잘못으로 한박스만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장 당일 저녁 늦게 도착해 어차피 쓰지도 못할 배추여서 반송을 요청했다.

하루가, 이틀이 지나도 업체에서 가져갈 생각을 안했다. 다시 반송을 요청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왔다. 며칠 더 기다렸다.

“차라리 내가 버려줄까” 했더니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단다. 그래서 또 기다렸다. 일주일째 절임배추는 집 문앞에서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안되겠다 싶어 쿠팡 고객센터에 문자로 문의했다. AI인지도 모를 상담사가 배송업체와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또다시 감감무소식이다. 다시 문의했다. 또 다른 AI인지 모를 상담사가 응대했다. 첫 상담사나 두번째 상담사 모두 기계적으로 ‘배송될 때

얼음팩이 있었느냐’, ‘얼음팩과 함께 (서늘하게) 보관하고 있느냐’는 질문만 늘어놨다.

이번엔 전화로 쿠팡에, 배송업체에 따졌다. 두 곳다 해결하겠다고 했다. 쿠팡은 자기들이 배송한 것이 아니니 해당 업체에 꼭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시 기다렸다. 9일째가 지났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그러다 쿠팡 고객센터에서 문자가 하나 날아왔다. ‘고객님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자기들이 가져갈테니 기다려달라고 할땐 언제고….

화가나서 못버리겠다고 쿠팡에 다시 전화했다. 해당 배송업체와도 격앙된 목소리로 통화했다. 어느새 정(?)이 들었던 배추는 쿠팡, 배송업체와의 사투끝에 열흘 만에 반송됐다.

쿠팡이 요즘 화두다. 발단은 34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탓이다. 물론 내 정보도 포함됐다.

개인정보가 털린 것도 화가 나는데 사태가 벌어진 이후 쿠팡의 대응은 더욱 가관이다.

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의 입장은 사태 한달이 지나서야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사정기관 등 공직에 있다가 또 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다 쿠팡으로 향했던

사람들이 셀 수 없는데도 회사의 위기대응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데 일단 놀랐다.

쿠팡이 고객들에게 보상한답시고 내놓은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도 뜯어 보면 가관이다. 1인당 5만원 꼴이라고 하지만 고객들이 주로 쓰는 쿠팡 상품 이용에는 고작 5000원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고객들을 우롱하고 국민들을 기만했다.

늑장대응, 안일한 대응으로 뿌리가 통째로 흔들렸던 기업들의 사례는 우리나라 기업사에서 얼마든지 있다.

쿠팡은 국내 1호 유니콘 기업이다. 가뜩이나 작은 내수시장서 혈투를 벌여 몸집만 커진 기업에 ‘유니콘’ 칭호를 붙이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특히 쿠팡을 이끌고 있는 김범석 의장은 벤처업계에서 성공 신화를 쓴 인물 중 한명이다. 잘 나갈땐 그랬다. 하지만 사람이나 기업이나 위기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다. 이제 쿠팡은 유니콘기업도, 벤처기업 타이틀도 아깝게 됐다.

머리와 마음, 기업가정신 없이 장사만 잘해 몸만 비대해진 기업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냉철할 때가 됐다.

/bada@metroseoul.co.kr

## 희망은 오늘을 건너는 힘에서 온다

### 기자 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2026년이 시작됐다. 새해를 맞는 인사가 예전처럼 가볍게 나오지는 않는 시대다. “올해는 작년보단 낫겠지”라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는 분위기다.

지난 몇 해 동안 사회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코로나 팬데믹부터 계업 사태, 그리고 이어진 경제의 불안, 반복되는 사고와 갈등은 일상의 체력을 서서히 소진시켰다. 사회 곳곳에 쌓인 피로와 불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회의 분위기는 ‘앞으로 나아가자’보다는 ‘일단 버텨보자’에 가깝다. 빠른 변화보다 안정, 과감한 도전

보다 실수를 줄이는 선택이 늘었다. 모두가 조금씩 지쳐 있지만, 동시에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요란한 구호와 다짐 대신 작고 현실적인 기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무조건적인 성장보다 공정한 기준을 요구하고, 큰 성공보다 일상의 안전과 신뢰를 중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한다. “예측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에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다만, 조금은 덜 불안하고 대응 가능한 환경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입을 모운다.

아마도 2026년은 이런 소박한 바람들이 모여 사회의 방향을 만들 것이다. 희망은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무사히 건너는 힘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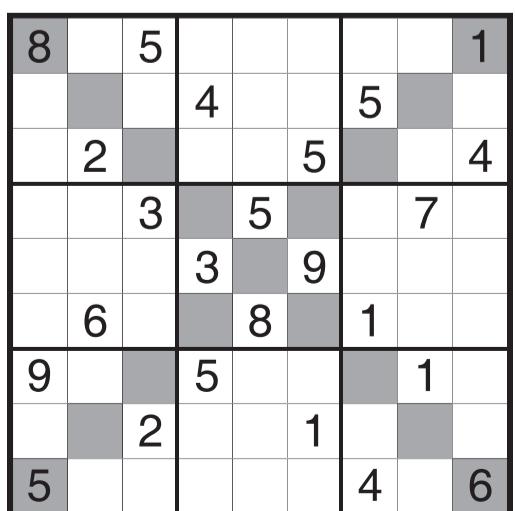
기자의 역할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올해는 자극적이고 피로도가 쌓이는 기사보다 따뜻한 내용을 담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를 바란다. 갈등과 오해를 키우기보다 이해의 여지를 남기는 기록, 불안을 부추기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6년은 모든 것이 단번에 회복되는 해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숨을 고르고, 속도를 조절하며,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하는 해가 될 거라 믿는다. 희망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 다시 사회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작은 변화의 조짐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겠다 다짐해본다.

/tree6834@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宫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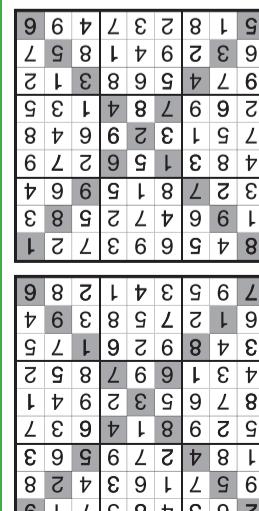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도의도의 퍼즐풀기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활인도서



## 김상회의四季

### 병오 육갑



64갑자 중 병오(丙午)은 마흔 세 번째 해다. 六甲의 물상적으로는 붉은 말이라 하여 火의 天干이 지지의 火와 만나니 기운과 동력이 넘쳐서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 즉흥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천간과 지지가 모두 火이니 한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힘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어서 흔히 말하는 적토마의 기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수가 방향을 잘 잡고 제어해주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힘을 써버린다. 이를 에너지 작동방식으로 설명해보자면, 丙의 성격은 한낮의 뜨거운 열인데 그 열이 향하는 방향은 확실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열이 한 방향이 아니라 360도 모든 방향으로 향해있기 때문에, 따라서 힘은 있는데 그 힘을 어디로 써야 할지를 몰라서 방향성이 빠진 경우이다. 이럴 때는 멘토가 중요하다.

적토마에게는 그 적토마에게 걸맞은 장수가 필요함이다. 병오년은 납음(納音)으로는 천하수(天河水)가 되는데, 천하수는 납음의 물상으로 볼 때 천지사방에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은하수 아래로 방울방울 쏟아지며 푸른 하늘에서 가느다랗게 날아드는 천상의 비와 이슬이라고 본다. 이 천상의 물과 이슬은 만물을 발생하는데 그 만물이 의지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옛 문서에는 설명한다. 이 천하수의 납음에 속하는 것이 병오와 정미가 된다. 납음(納音)이란 육십갑자를 궁·상·각·치·우라는 고유의 음운이론을 접목한 것인데, 육십갑자를 이렇게 오음에 분배하여 오행적 특성을 천하수니 장류수니 하는 상징적 물상으로 표시한다. 천지자연의 에너지와 원리를 반영하여 실사화된 기호를 육십갑자 음양오행과 소리의 음운으로 응용하여 운명을 큰 줄기로 판단하는데, 소리 역시 우주 자연의 원리가 투영된 것으로, 음양오행론에 또 하나의 변수를 적용시킨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52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192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KT  
위약금 면제 첫날  
6000명 이탈  
L1

서울시  
중企·소상공인  
대출부담 낮춰



L4

# 자녀 공제 늘고, 배당 분리과세 도입… 생활밀착 제도 바뀐다

##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포함  
유아 무상교육 지원 4세까지 확대  
최대 월 50만원 '청년미래적금' 신설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

새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가 늘고, 고배당 상장주식에는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대중교통 환급 확대와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최저임금 인상 등 2026년부터 국민 생활과 가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세금·금융부터 교육·복지, 고용, 환경까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 ◆ 자녀 1명당 공제 50만원 인상

자녀 양육부터 주거, 노후까지 생애 전반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그동안 자녀 수와 무관했던 기본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원 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 기준으로 바뀐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돼 다자녀 가구 혜택이 커진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

## 2026년 달라지는 제도 주요내용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녀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초과시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포함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확대**  
기준 5세 → 4세  
학부모 평균부담비율 보전(어린이집 월 7만원)

자료/기획재정부 2026년(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올해 첫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

- 최저시급 인상**  
1만30원 → 1만320원(2.9% 인상)

- 청년미래적금 신설**  
만기 3년, 최대 월 50만원 자유적립형 비과세 적금  
(최대 적립 시 2000만원 이상 목돈 마련 가능)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율: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3억 원 20%,  
3억~50억 25%, 50억 초과 30%

- 증권거래 세율 조정**

코스피: 0.05%, 코스닥·K-OTC: 0.20%

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연 100만원 초과 시 배제)도 폐지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직장 등의 사유로 부부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노후소득 과세도 완화된다.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춘다.

### ◆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배당 투자시 세금 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단기 매매시 비용은 느는 구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2024년 대비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법인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해 했던 증권거래세율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원상복구된다.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과 K-OTC는 0.20%로 각각 0.05%p 인상된다.

###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공립유치원은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학부모 평균 부담비율인 월 7만원이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비율도 높아진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돼 학습, 복지, 건강,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 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도입된다. 월 납입 한도 50만원, 만기 3년 자유적립식 비과세 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높아진다.

### ◆ 최저임금 월 215만6880원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돼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현행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지고, 정리해고·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규모 줄이고 안목 키워… 새해 투자·소비 트렌드는 '선택'

## 2026년 트렌드 키워드

투자 인식 개선… MZ 투자 참여 늘어  
가치 중심 합리적 소비로 만족 극대화  
AI 기술 진화… 발견 중심 쇼핑 가속

금융과 산업, 유통 전반의 흐름이 2026년을 앞두고 동시에 변곡점을 맞고 있다. 자산을 대하는 태도부터 구매 기준, 기업의 운영 방식까지 전반적인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얼마나 규모가 크나'보다 '잘 고르는 선택'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개인은 투자와 소비에서 스스로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업은 기술과 조직 구조를 재편하며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고 있다. 2026년을 관통할 금융·산업·유통 트렌드는 이러한 선택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전환으로 요약된다.

### ◆ 자산 운용 핵심층으로 떠오른 MZ세대

2026년 주목할 만한 금융 트렌드는 '투자의 대중화'다. 예·적금에만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소비자의 금융 역량과

투자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금융자산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보유한 소비자 비중은 2024년 29.6%에서 2025년 31.5%로 증가했다. '중 자산' 구간의 비중이 늘면서 평균 금융 여력이 개선되는 흐름이다.

특히, 새해에는 MZ세대(1980년대~2000대 초반 출생)의 투자 참여 흐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세대별 투자·가상자산 예치 비중을 살펴보면 M 세대가 34.9%로 가장 높았으며, Z세대가 26.3%로 그 뒤를 이었다. MZ세대가 투자 중심 자산 운용의 핵심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 ◆ 아끼되 만족은 극대화 '듀프' 소비 확산

고물가 기조 속에서 소비자들은 무조건적인 절약보다 합리적 선택을 통한 만족 극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3~69세 남

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평소 가성비를 꼼꼼히 따진다고 답했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며, 남들의 시선보다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우선한다는 응답도 80.6%에 달했다. 반면 고가 브랜드·명품 구매를 사치로 인식하는 비율은 83.3%로, 브랜드보다 제품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듀프(Dupe) 제품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듀프 제품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5%에 그쳤지만, '자세히 몰라도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47.4%로 높았다. 듀프 소비에 대한 평가는 긍정 응답(48.8%)이 부정 응답(9.5%)을 크게 웃돌았으며, 구매 경험자 중 절반 이상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합법성과 윤리성에 대한 요구가 저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나, 향후 듀프 시장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 ◆ 패션&뷰티, 취향과 서사를 담아

패션 시장은 '버드나무(WILLOW)'와 같은 유연한 대응이 생존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삼성패션연구소는 내년 패션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로 '수기응변(隨機應變)'의 태도를 강조한 'WILLOW'를 제시했다. 이는 거센 세파에도 꺾이지 않는 버드나무처럼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적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구소는 내년 패션 시장이 2%대의 소폭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을 주도할 동력으로는 대형 브랜드가 아닌 '작은 브랜드'들이 꼽혔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유명 로고를 희기보다 자신만의 취향과 서사가 담긴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술의 진화도 시장 판도를 바꿀 변수다. 생성형 AI가 쇼핑 전반에 스며들며 소비자가 우연히 상품을 마주하는 '발견 중심 쇼핑'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품 소유보다 '경험'에 가치를 두는 소비 패턴이 심화되

고, 고정관념을 깬 '진화하는 오피스웨어'가 부상하는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됐다. 결국 2026년은 기존 관행을 버리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브랜드만이 기회를 잡을 것으로 분석된다.

뷰티 업계에서도 가성비와 제품력을 모두 잡기 위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저가'라는 가격 경쟁력으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K뷰티가 독자 구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뷰티 대기업도 초기자 시장에 적극 대응한다. 이미 성분과 효능을 입증한 브랜드와 함께 유통 채널별 맞춤형 전략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지지율 25%'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지막 1초까지 일할 것…조기 퇴진 없어"

▲ 워런 버핏 버크셔 회장 '은퇴'…버크셔 주가, 1965년 대비 610만% 올라

/사진 뉴시스

▲ 中 시진핑 주석, 신년사 "홍콩·마카오 한 국가 두 체제…양안 통일은 역사적 대세"

▲ 日다카이치 총리, 신년사 "일본 강하고 풍요롭게 할 것…필요한 개혁 단행"

▲ 대만 라이징더 총리, 신년사 "중국 압심 맞서 국가주권 확고하게 수호할 것"

▲ 러 푸틴 대통령 신년사 "모든 군인과 지휘관들에게 축하…승리 의심하지 않는다"

**HYUNDAI**  
MOTOR GROUP

해 뜨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새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갑니다

누님 같은 소나무가 빙그레 웃는

새해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사랑하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길이 끌나는 곳에서도 다시 길을 가게 합니다

정호승  
새해의 맑은 낯살 푸나가  
중에서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은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